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코로나 극복 공동체 백신 나눔 수기공모 작품집

희망으로 가는 길목





발간사



코로나19 속에서도 마을공동체는 자라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는 희망의 노래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찾아 온 코로나19!

처음으로 겪는 전지구적인 재난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멈추었습니다.
학생들은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고, 친구들 얼굴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선생님과는 화상채팅으로 만나게 되는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일수록 일상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많은 이웃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면 마스크 만들기, 손세정제 나누기, 어려운 이웃에게 도시락 배달하기, 나는 OK
당신 먼저 캠페인에 동참하기 등등 나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을공동체의 정신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있는 당신이
야말로 최고의 백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상반기 동안 코로나19를 이겨낸 사례, 이웃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감동사연을 발굴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한『코로나 극복 공동체 백신나눔 수기공모』에 총 58건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사위원 4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이 중에서 17건의 당선작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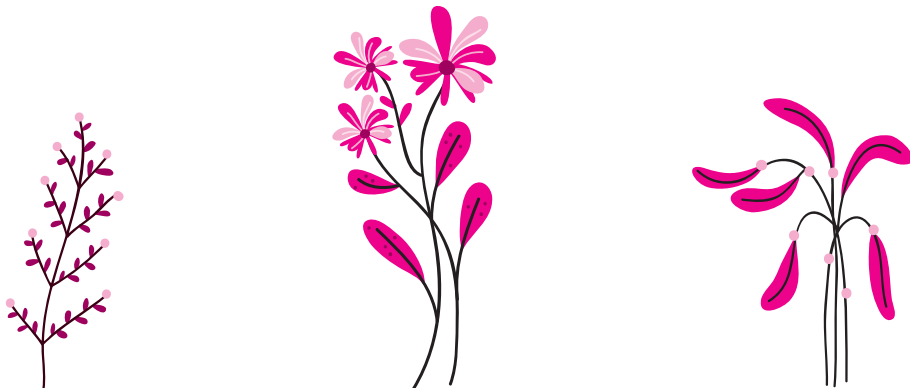
『코로나 극복 공동체 백신나눔 수기공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박선화님을 비롯한 수상자분들께는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시상식에서 직접 쓴 축하시를 낭독 해 주신 권순자님, 정여빈님, 전종만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양천구청 김수영구청장님과 주민협치과 마을공동체팀에도 감사드립니다.

수기공모 작품집의 제목은 양천구청 건설관리과 전종만과장님의 축하시 제목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온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앞으로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 이번 수기공모의 취지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신뢰할 수 있는 이웃간의 관계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마을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코로나19를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희망으로 가는 길목>이 모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0.9.21.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박진갑



목차

심사총평	006
도둑 코로나_ 김지원	008
코로나를 막아 줄 수 있는 옷_ 김소울	010
코로나와 싸워 이기자_ 한성진	012
코로나 세상, 코로나가 없어진 세상_ 김하준	014
손 씻기로 코로나를 없애자_ 이지현	016
마스크에 가려진 꽃같은 너희들,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_ 박선화	018
얼음꽃_ 권순자	021
소중한 졸업앨범_ 이재빈	022
가고싶고 보고싶은 양천마을 공동체_ 정해림	023
코로나 생활기_ 이찬희	024
수제 마스크 기부활동을 마치며_ 표민	026
할머니 사랑해요_ 장휘문	028
30년 뒤의 나에게_ 장휘령	029
아빠 코로나 19가 뭐예요?_ 양준서	030
코로나 19 함께 이겨내보아요!_ 이정연	031
자가격리_ 정여빈	032
나의 사랑 어머니_ 박동매	033
마스크_ 양재춘	034
함께 이겨낼 오늘, 그래서 더 값진 내일을 위해 힘내세요!!_ 이선미	036
바로서기_ 유지미	039
입, 눈, 마음_ 유우상	041
함께하면 이겨 낼 수 있어요_ 유재경	043
일상_ 원은실	045
가족 같은 이웃은 우리 아이의 백신 ^^_ 이정화	046
해맞이 마을은 통장들이 지킨다~!!!_ 신월7동 통장협의회	048
희망으로 가는 길목_ 전종만	052
코로나가 무섭다구요? 함께라면 이겨 낼 수 있지 않을까요?_ 전미이	054
백신보다 100사_ 박은경	056
코로나19 긍정마인드로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_ 문희주	058
별일없지?_ 양승완	059



함께 하는 양천마을공동체♡♡♡ 최정아	060
코로나19 극복 공동체 백신나눔_ 양천아이클생협	063
슬기로운 코로나 고3생활을 보내고 있는 아들에게_ 이희숙	065
우리 모두 함께 코로나19 이겨내자!_ 엄보미	067
한마음으로 마스크 만든다_ 김은정	069
네? 퍼레이드에 아이들을 참여 시키자고요? 헐_ 양혜완	070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든다_ 최서은	072
목4동 우리 마을_ 이현진	073
코로나로 다시 서는 나_ 임은아	075
나에게 다가온 코로나의 생활_ 김효순	077
우리는 희망 나누미_ 김영원	079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의 이야기_ 박보경	081
언젠가는_ 박윤정	083
당연한 것들_ 문선영	084
타국에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에게_ 임재현	085
단 하나의 여성생협 행복중심생협 슬기롭게 코로나19 마을공동체와 함께 해요_ 행복중심서울서남생협	087
마스크와 코로나 그리고 나라구한 아내_ 이권웅	088
이상적인 일상_ 이해경	090
안전한 교류_ 최혜임	092
코로나 19로 친구도 못 알아볼 줄이야_ 이호중	093
마음 백신_ 박경미	094
코로나 극복_ 정용숙	096
우리, 괜찮아요!_ 유효영	097
시름이 사랑으로_ 권문영	098
코로나_ 정숙희	099
우리 가족 행복 캠페인_ 지준희	100
코로나 덕분에..._ 정해란	10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목2동 주민자치회의 노력_ 목2동 주민자치회	102
면마스크 나눔 캠페인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마을공동체 백신?!_ 이진영	103
행복_ 황계진	106
제 마인드가 달라졌어요_ 박현주	108



심사 총평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된 코로나 수기공모에 응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태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시기를 대처하기 위해 며칠 또는 몇 달에 걸쳐서 적극적 참여 또는 봉사를 해 주신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를 통해 노력한 모습을 글로 옮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동과 위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코로나 극복 공동체백신 나눔 수기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위원들은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간 각자의 기준에 따라 수상후보작을 선정하였고, 7월 15일 15시부터 심사위원들 간에 토론을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려한 심사기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신의 경험과 본인의 생각 및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는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방식에서 독창적으로 표현하였는가, 글의 구성방식이 잘 짜여 있는가, 내용 전달력이 높은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과장된 표현이나 상투적 표현 대신 자신이 경험한 활동을 중심으로 주제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서 잘 읽혔고, 읽는 중에 즐거움을 발견하였습니다. 최우수작은 박선화의 <마스크에 가려진 꽃 같은 너희들,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정하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세밀한 묘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글의 구성이 짜임새가 뛰어났습니다. ‘코로나 극복 공동체백신 나눔 수기공모’에 작품을 응모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전하시길 바라며 댁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5일

심사위원 일동 올림





코로나 극복 공동체 백신 나눔 수기 공모 작품집

- 그림

도둑코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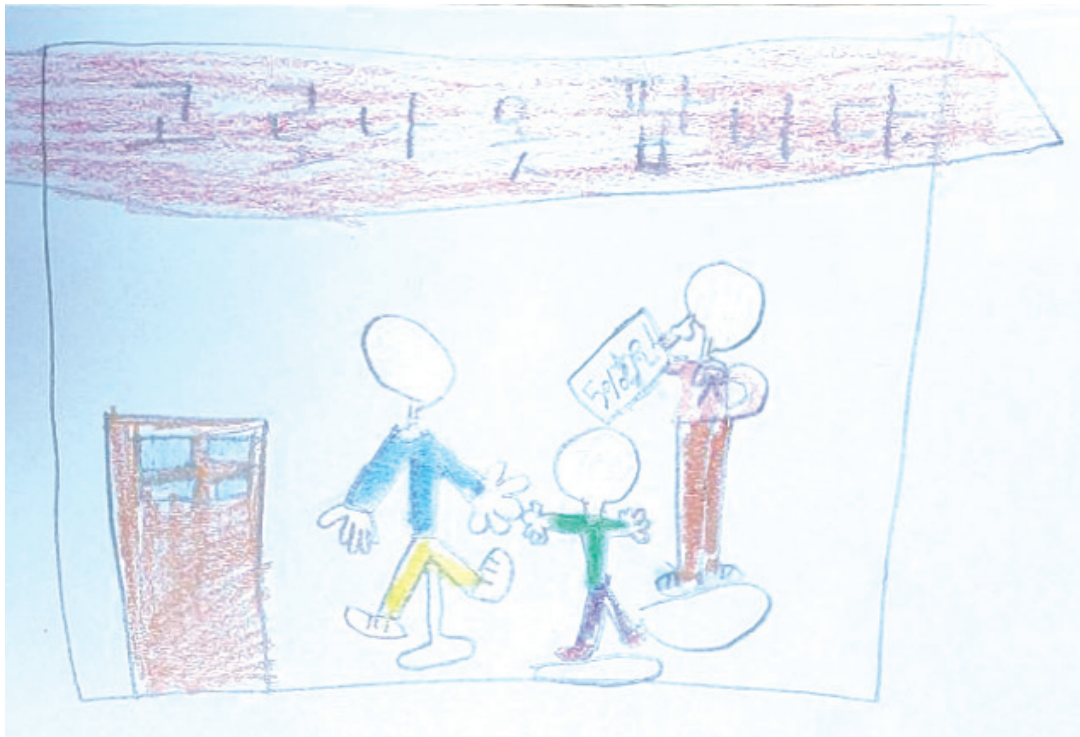
김지원

코로나는 도둑
모든걸 훔치는 도둑
시간도 행복도 우정 등등을
훔치는 도둑
어떻게
하면
잡을수있을까?
도둑코로나를
어떻게
고문할까?

도둑 코로나

코로나는 도둑
모든걸 훔치는 도둑
시간도 행복도 우정 등등을
훔치는 도둑
어떻게
하면
잡을수있을까?
도둑코로나를
어떻게
고문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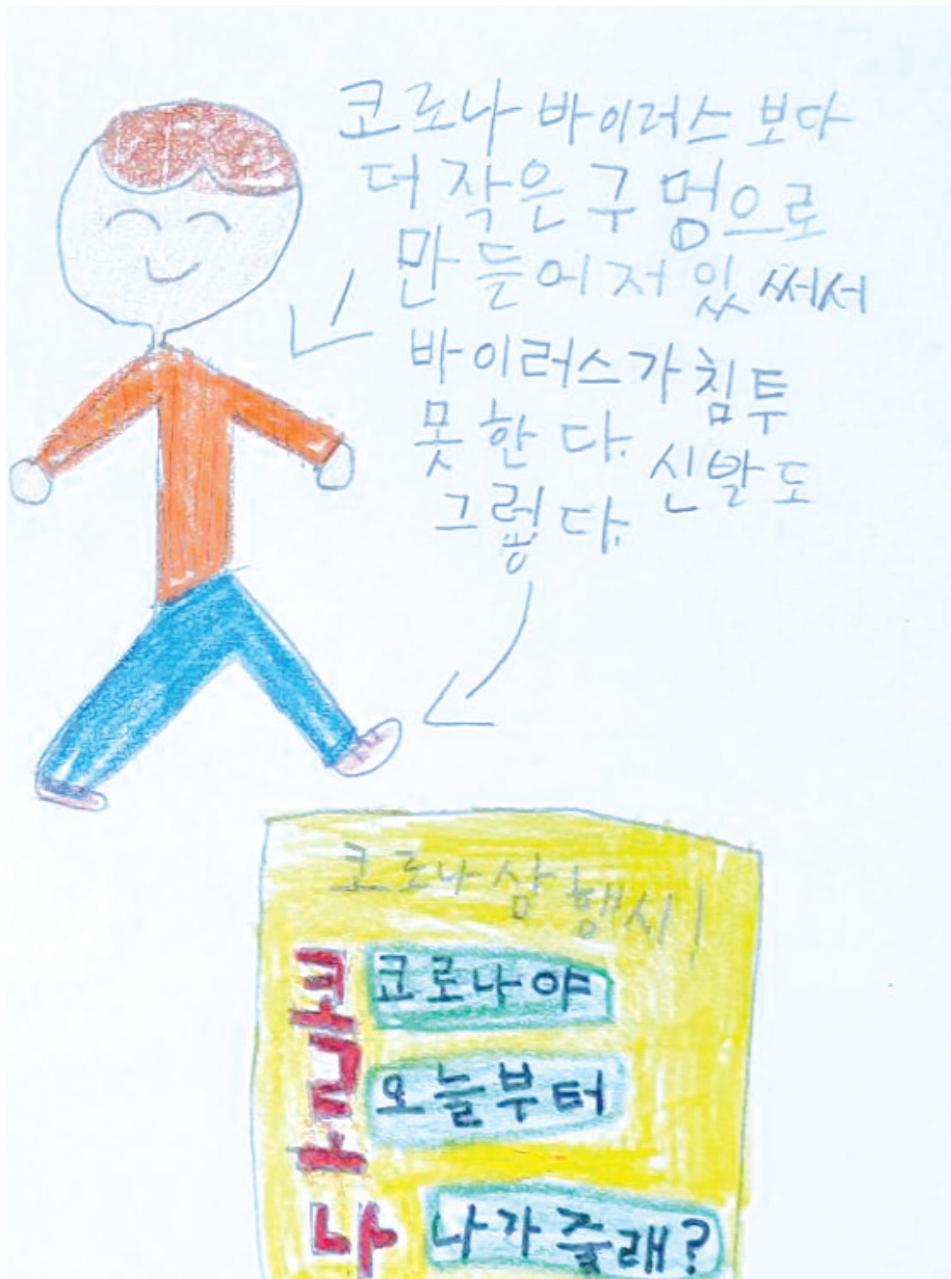




그림김소영

코로나를 막아 줄 수 있는 옷

김소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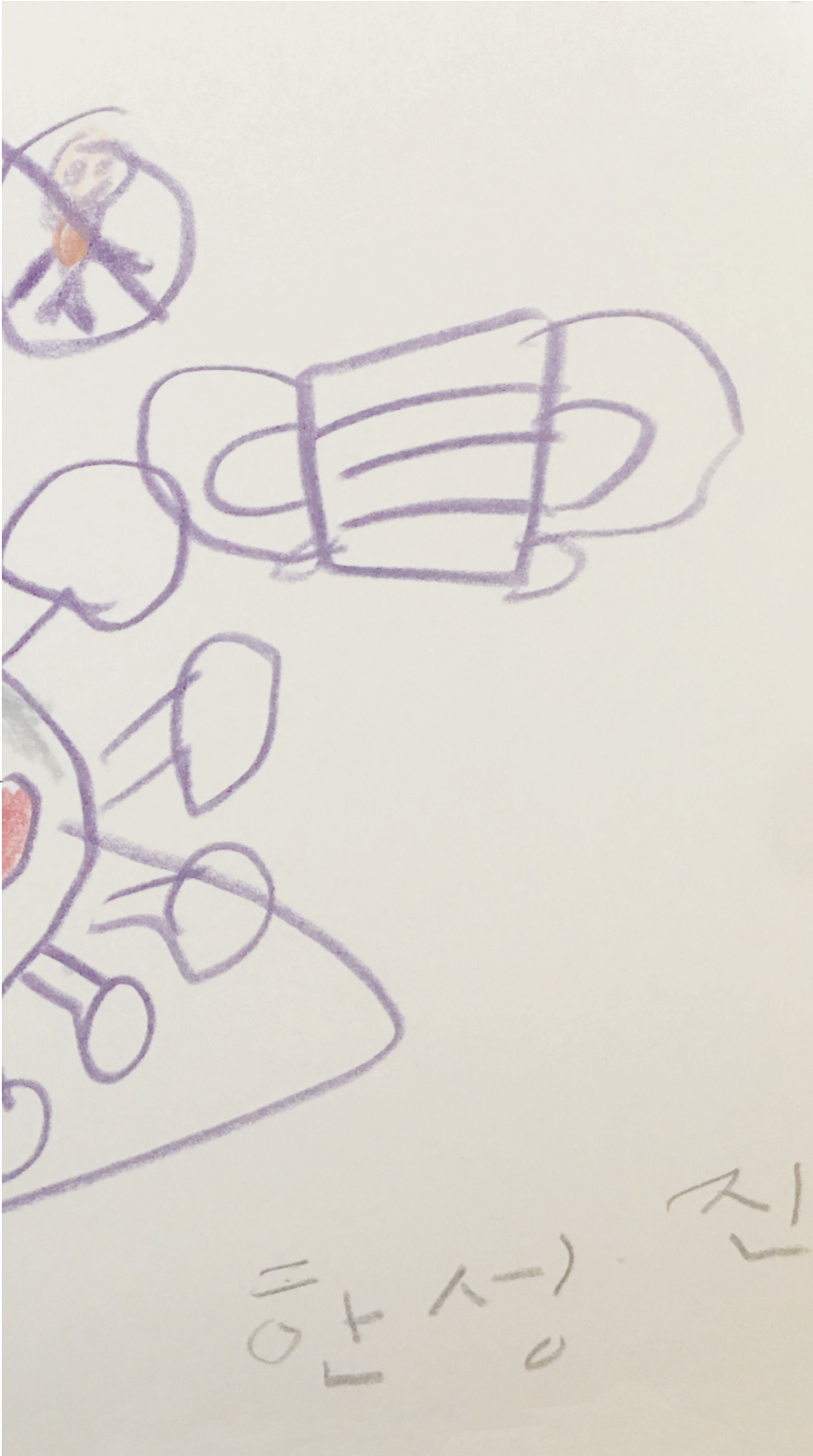




함께라서
행복한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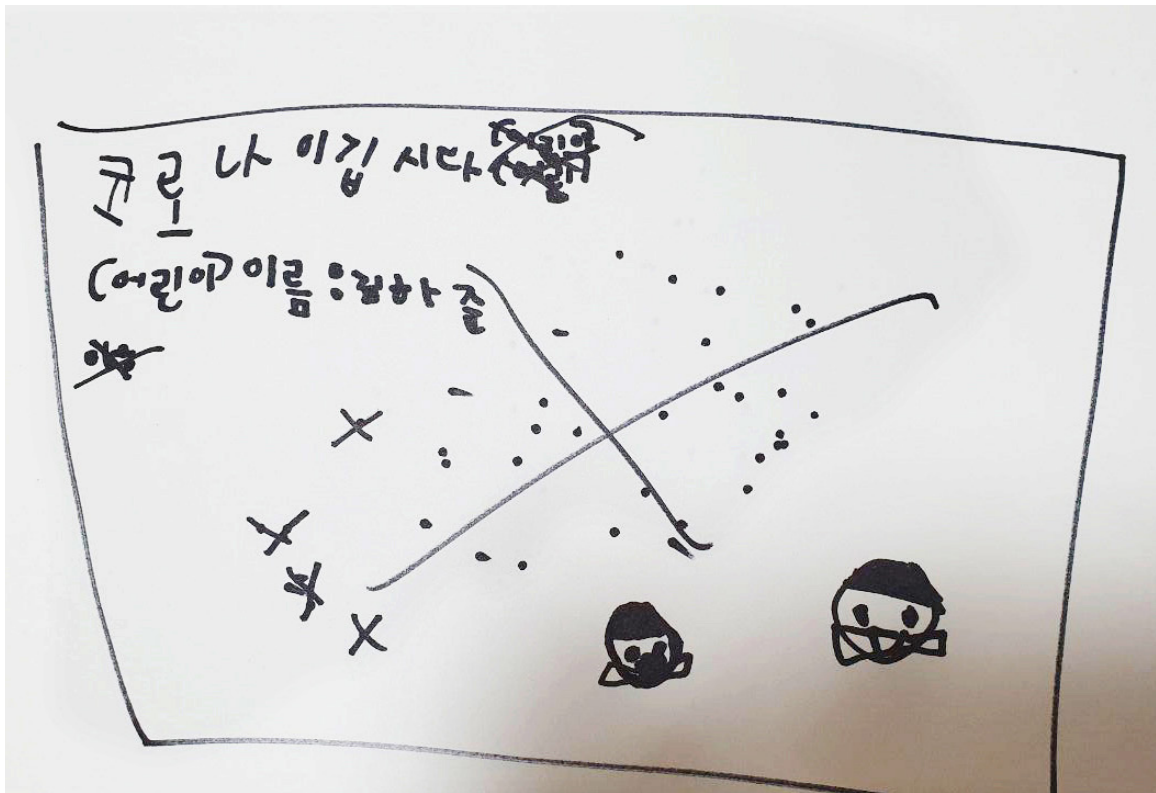
코로나와 싸워 이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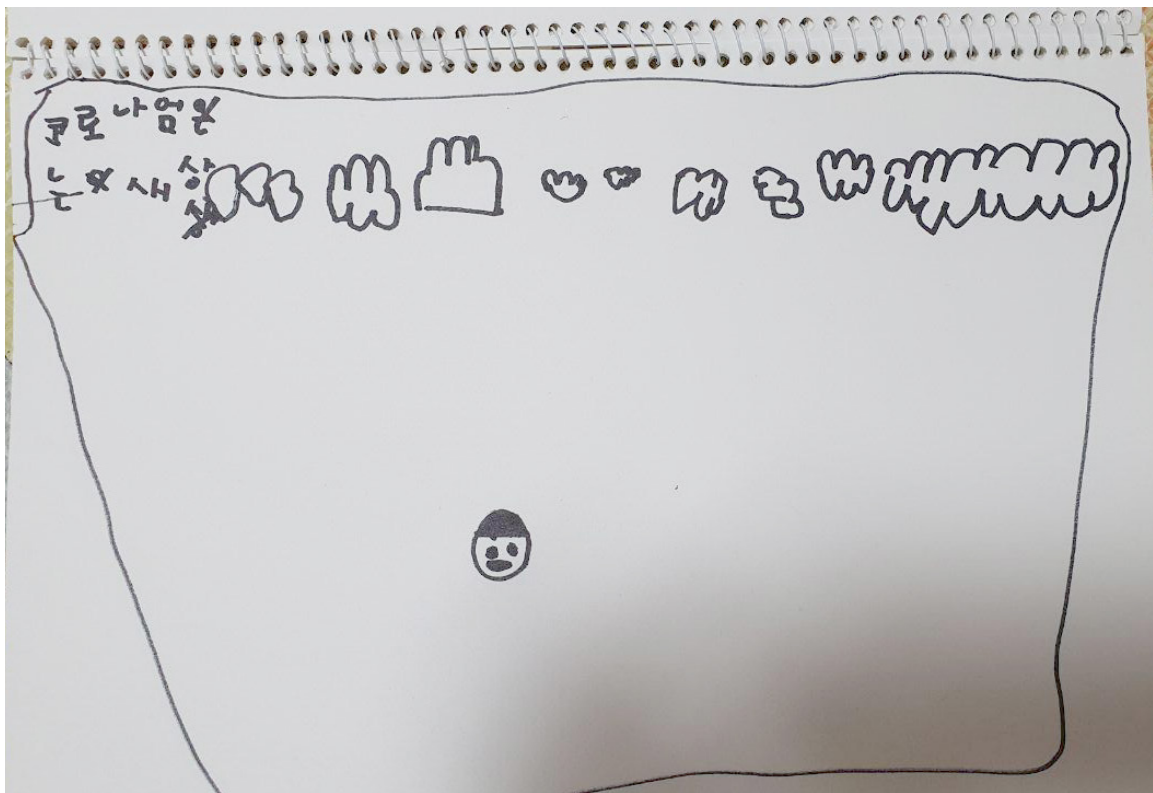
한성진



코로나 세상, 코로나가 없어진 세상

김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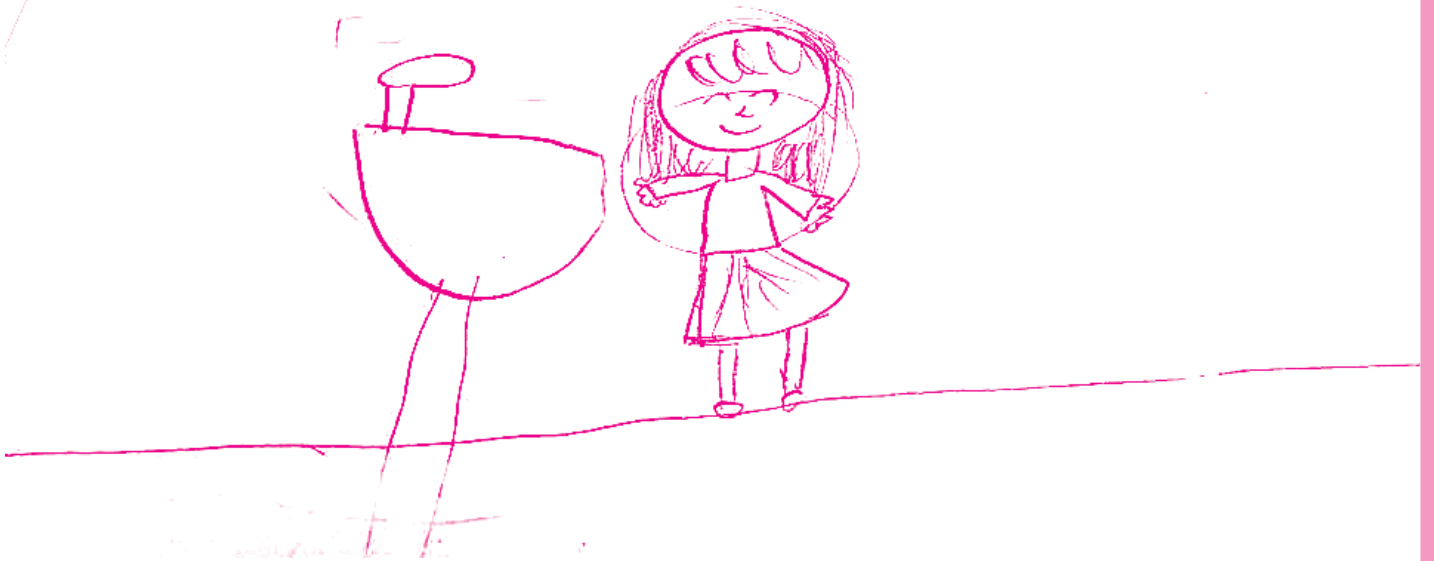


손 씻기로 코로나를 없애자

이지현

손 씻 기 로 개 코 나 를 없 애 자


코 로 나 를 이 겨 낸 다






코로나 극복 공동체 백신 나눔 수기 공모 작품집

- 글



마스크에 가려진 꽃 같은 너희들,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



박선화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에게

“애들아, 더운데 마스크 좀 잠깐 벗어.”

“안 돼요. 엄마,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잘 쓰고 있어야지 코로나가 더 빨리 끝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갓 열 살이 된 너의 말을 듣고 엄마는 순간 움찔했어. 마흔을 훌쩍 넘기고도 이렇게 엄마는 이기적이고 철이 없구나 싶고, 걱정 없이 세상을 보고 자라야 할 너희들에게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이 미안하기만 했단다.

나의 아들들아, 코로나 덕분인지 코로나 때문인지 2020년 올 5월의 하늘은 유난히도 더 청명하고, 봄이면 하루 걸러서 매일같이 하늘을 뿌옇게 뒤덮던 미세먼지도 올해는 거의 없더구나.

정상대로였다면 너희들은 3월에 새 학년 새 학기 개학을 했을 테고, 4월이면 제법 반 친구들과 친해져서 장미가 만발하는 5월쯤에 놀이터에서, 공원에서 서로 만나서 즐겁게 놀고 있을 텐데. 새 학년이 되어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담임 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들과조차 만나지도 못한 너희들. 더구나 올해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맞은 나의 큰아들, 너의 6학년은 학교에서의 추억보다 코로나에 대한 기억이 더 클 것이고,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너희들만의 추억 여행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해야 했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여러 가지가 무너지고 힘들어진 일상에서 과연 너희들에게 이 코로나는 나쁜 기억만 남기게 되는 걸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옮겨지는 전염성 바이러스라 사람과의 만남도 경계하고, 누구 하나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혹여 간혹 재채기만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봐야 하는 코로나 현실에서 엄마는 너희들에게 코로나의 따뜻한 추억은 만들어줄 수 없을까 자꾸 생각하게 됐어.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된 ‘힘내라 양천! 면 마스크 나눔 마을공동체 캠페인’. 지난 2월 갑작스럽게 급속도로 코로나 감염자가 늘어나고, 마스크의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정부에서 나서서 요일별 5부제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기 시작했지. 너도 기억나지? 평일에 너가 태어난 끝자리 요일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 토요일 아침 1시간을 넘게 엄마와 함께 줄을 서서 마스크를 샀던 거. 그때 아침부터 약국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게 힘들다면서 너가 이렇게 말했어.

“엄마, 우리도 서서 이렇게 기다리는 게 힘든데, 할머니, 할아버지나 장애인들은 진짜 마스크 사는 게 힘들 거 같아요.”

“집에 갓난아이가 있고, 혹여 아픈 아이를 돌보는 엄마라도 이렇게 나와서 길게 줄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한다면 구입하러 나오기도 힘들 거 같아.”

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마스크 구입도 다소 수월해졌지만, 3월 즈음만 해도 정말 마스크 구입이 일주일 중에 가장 큰일이었다는 생각이 나네. 그런데 이렇게 길게 길게 늘어선 줄에 서서 최소 한두 시간을 기다려야 구입할 수 있었던 마스크였기에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했던 마스크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캠페인을 한다고 하기에 엄마는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너희 또한 선뜻 함께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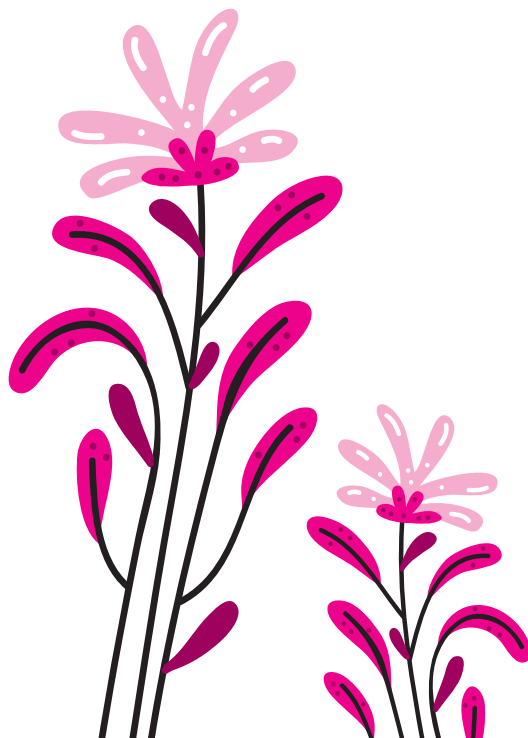
마스크 만들기 DIY용 키트를 집에 가져와서 저녁 늦게까지 함께 만들어 본 사랑의 마스크. 바느질이 서툰 둘째는 초크를 들고 마스크 천에 바느질선을 그리고, 그래도 좀 더 컸다고 첫째 너는 바느질을 시작했지. 어찌나 꼼꼼하게 잘하던지. 너희들이 잘할 수 있을까 의심했던 마음을 가졌던 게 쑥스러울 정도였어.

어느 날 너희들이 나에게 오늘 우리가 만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봤다고 말했을 때 너희들의 뿌듯해했던 표정. 큰 물질적 도움은 아니었지만 그보다도 더 크고 따뜻한 마음, 너희들의 2020년 올해의 스케치북엔 코로나 상황을 흐린 먹색이 아니라 그래도 적게나마 나눔과 사랑의 따뜻한 색으로 채울 수 있었음이 참 다행이라 생각해.

여전히 불안하고 아직도 아니 앞으로 끝이 있을까 싶은 코로나 상황, 지난해 12월 처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감염환자가 나오고, 세계 곳곳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공장들은 문을 닫고, 사람들은 일 자리를 잃고 생계가 힘들어지고 너희들은 학생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학교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지.

간혹 생각해본다. 우리는 지금 그동안 우리가 혹독하게 대했던 지구에게, 천지의 대자연에게 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도 마스크를 쓰고 친구들과 마주하고, 마스크를 쓴 채 일상을 보내고 있는 너희들. 너희들이 우리들의 미래이기에 어른들은 더 애써야 할 거 같아.

웃는 얼굴인지, 화난 얼굴인지, 아님 그냥 그렇게 멍하게 있는 얼굴인지도 모르게 마스크로 가려진 너희들의 꽃같이 예쁜 얼굴, 얼른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다 함께 환하게 웃고 마음껏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어서 오기를 엄마는 바래고 또 바래본다.



축하시 1

얼음꽃

권순자

바람결에 맴돌다가
당신이라는 매끄러운 표면에
얼어붙은 나의 운명
당신에게 하얗게 엉겨 꽃이 되었네
죽도록 붙어서 짧은 인연 애달파라
녹아내리며 매달려 애달픈 사랑
기다려줘
작은 알갱이로 잠깐만 빛날게

빛이 당신과 나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네
야멸찬 빛
당신은 나를 주워 담을 수 없어서 우네
빛이 나를 데리고 가네

미끄러운 절벽을 건디는 비밀은
빛이 뒤돌아보는 순간 내가 투명하게
생을 멈춘다는 것
당신은 햇살에서 나의 냄새를 맡는다는 것

아, 나는
녹지 않는 사랑이 되고 싶었네

함께라서
행복한 상

소중한 졸업 앨범

이재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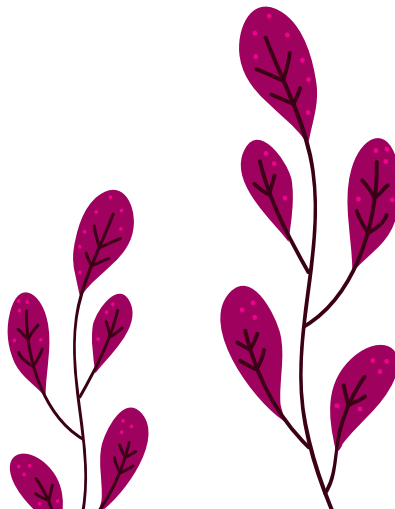
저는 1학년 이재빈이에요. 저는 8살인데, 초등학교 입학식을 못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요. 코로나19바이러스는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 졸업식도 못 하고 어린이집에서 졸업할 때 재미있는 선물도 준다고 했는데 못 가지고 왔어요.

어린이집 친구들과 놀던 놀이터를 지나가면 친구들과 선생님이 생각나요. 고려창의스쿨 원장 선생님, 원감 선생님, 뜻세움반 김지영 선생님과 뜻세움반 친구들이 계속 보고 싶어요.

대신 졸업식 전에 찍은 앨범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거기 앨범에는 다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2번 가온이 사진들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 반 애들 사진이 다 들어 있어요. 그게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학교도 매일매일 가고 싶은데, 수요일 하루만 가요. 그래도 학교에 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학교에서 계속 마스크를 끼고 띠엄띠엄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이렇게 해야 코로나바이러스가 없어질 수 있으니 참아야 해요.

손도 잘 씻고, 마스크 쓰고 우리가 띠엄띠엄 떨어져 지내며 건강한 음식을 먹고 지내다 보면 코로나바이러스도 도망갈 거예요. 모두 힘내세요!!



가고 싶고 보고 싶은 양천 마을공동체

정해림

엄마를 따라다니며 알게 된 양천 마을공동체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자주 만나고 시간을 보낼 수록 많은 정이 든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19가 찾아오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규칙에 묶여 활발한 활동들을 못 하게 될 즈음에 양천 마을공동체에서는 청소년들의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주제로(?) 마을 청소년들이 모이게 되는 자리를 만들어주셨다. 늘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계획표 속에 우리 같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그래서 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주제를 나의 상황에 맞추어 비교해보기도 하였다. 고등학생 오빠들의 의견을 들으며 나도 저렇게 토론을 잘해보고 싶기도 했고 아직까지는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런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 뭔가 대접받는 청소년처럼 느껴져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자꾸 생각해보게 된다.

가끔 보고 싶은 마을공동체 센터장님과 팀장님이 계셔서 좋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보고 싶은 사람은 천국에 가신 왕할머니였는데 우리 마을에 보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이 많지 않은 나는 엄마 때문에 만나게 되고 친해진 마을공동체 식구들이 친근하게 느껴져 마음이 든든할 때가 있다. 마을의 작은 산속 텃밭에서 야채를 기르고 고기도 구워주신 마음들이 참 감사하게 느껴진다.

가족 같은 느낌의 마을공동체 센터장님과 팀장님이 오랫동안 친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학교와 학원만을 오고가는 청소년들을 불러모아 주시고 코로나19의 대응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시간들이 나에게서는 어른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첫 경험이고 뿌듯한 시간이었다.

비록 코로나는 아직도 우리 곁에서 말썽을 부리고 있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물러갈 거라고 생각된다.

어른과 청소년의 생각 속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와주어 코로나도 행복하게 이겨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가끔 엄마에게 마을공동체 가고 싶다!! 보고싶다!!를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혼자서도 갈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공부에 지친 우리들이 쉴 수 있는 마음의 쉼터 양천 마을공동체를 응원합니다♡

코로나 생활기

이찬희

서울 양천구 강신중학교에 다니는 이찬희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수기공모전이 있어 수기를 씁니다.

바이러스란 참 대단한 듯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엄청나게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여 우리를 아프게 하고 심하게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니까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많은 의료진분들의 희생 덕분에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렇게 좀 더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덕에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요. 3D펜에 관심이 생겨 하나 사서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아니면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으니까요. 학교를 가지 않으면서 온라인에서 수업을 듣는데요.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수업을 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고 숙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시스템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뭔가 공부를 하기 싫은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랑 하면 왠지 집중도 잘되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친구들이랑 선생님도 없으니 집에서 영상만 틀어놓고 아무 제재 없이 영상만 시청하니까 집중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늦었지만 학교에 나가 공부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학교를 평상시처럼 다닐 때에는 학교가 가기 싫었는데 막상 못 가게 되니 학교가 무척 가고 싶어졌습니다.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학교를 가게 되고 3일 후 회장 선거를 했습니다. 1학년 때처럼 1학기 회장이 되었습니다.

학생부에 환경복지부라는 곳에 들어가 차장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학생부는 할 생각이 없었지만 '자리가 비어 한번 해보지 뭐?'라는 생각으로 환경복지부 차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해에는 왠지 모르게 자신감도 생긴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뭔가를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1, 2, 3학년이 매주 1주씩 돌아가며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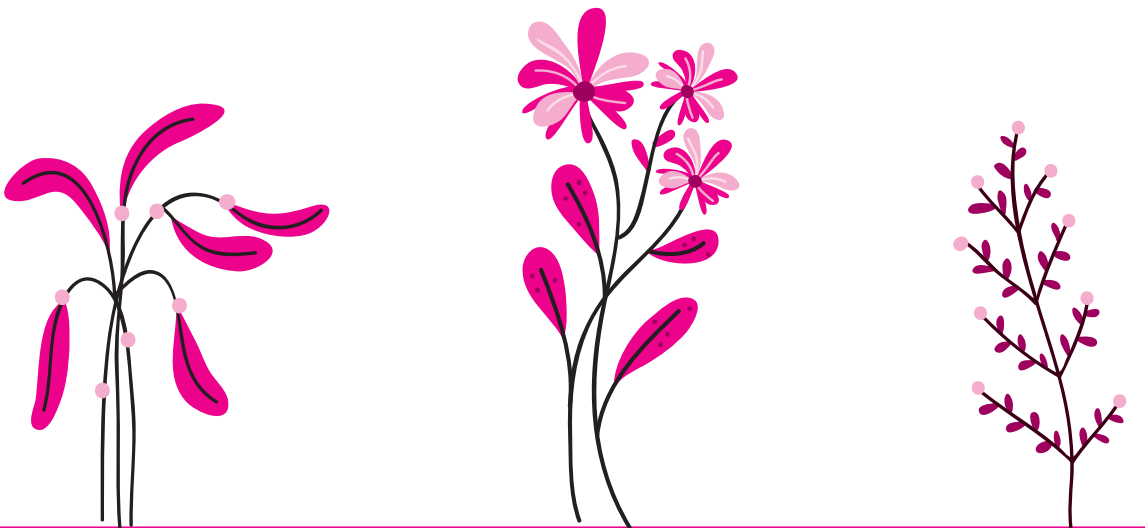
저의 어머니는 재봉틀공방을 운영하시는데, 코로나에 필수템인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마스크를 여러 개 만들어 팔기도 하고 기부행사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마스크 만들어 기부하기를 도와서 마스크를 만들었고 무려 1250원이나 벌었습니다. 많이 못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봉사를 하였는데 돈을 벌었다는 것이니까 많이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잠해졌다고 완전히 코로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간호사, 의사 분들 덕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만 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학교 2학년 때 온라인클래스를 경험해보고 1학년 1학기 회장에 2학년 1학기 회장에 학생부 환경복지부의 차장이며 농구부로 활동중인 이찬희였습니다.



수제 마스크 기부활동을 마치며

표민

코로나19에 의해 학교도 휴교를 했을 당시, 나는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마을공동체 모임인 ‘모자’의 화상 회의에 여러 차례 참여를 하였다. 코로나19에 의해 고통을 받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주자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신중하게 의논을 하였다.

회의를 하고 활동을 하는 중에도 나는 봉사를 하는 것에 진심을 담기 힘들었다.

최근의 코로나19도 솔직히 말하면 나를 포함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인과응보가 아닌가 싶어 모른 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채팅을 통하여 진행된 회의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나왔지만 정작 코로나 퇴치에 도움을 주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보다는 코로나가 끝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더욱 깊게 고민을 해야 했다. 결국 나와 친구들은 자발적으로 마스크 600개를 만들어 기부하기로 정했다.

각자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작업을 나누어 한 사람당 80여 개씩 마스크를 만들기로 약속했고, 개인이 마스크 만드는 과정을 각자 영상으로 만든 후 취합하여 동영상상을 제작하자는 의견에 모두가 동의했다.

집에 재봉틀이 있는 친구가 재단된 마스크에 박음질을 하고, 재봉틀이 없는 친구들은 천을 오려서 마스크 원본 모양대로 맞은 개수만큼 재단을 하였다. 나는 집에 재봉틀이 없어서 원단에 본을 뜨고 천을 오려서 마스크를 재단하는 일을 담당했다.

처음에는 시침핀에 여러 번 찢리고 만드는 속도가 느렸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나름 요령이 생겨 규칙을 찾게 되었고 속도가 빨라졌다. 마지막에 맞은 개수만큼 오리고 깔끔히 다듬어진 마스크 재단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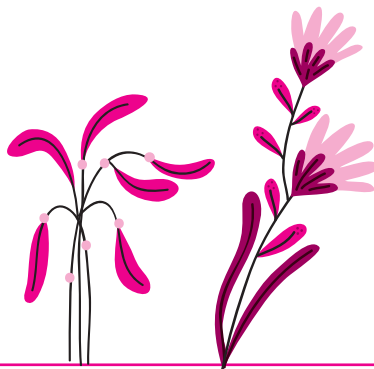
들을 보니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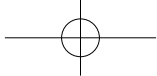
비록 뿌듯함에서 우러나온 탄성이었지만, 이때까지도 봉사의 필요성을 깨닫지는 못했다. 정성스럽게 오린 천들을 재봉틀이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고 마침내 친구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만든 마스크를 기부하는 날이 찾아왔고. 우리는 부푼 마음을 안고 양천구청에 가서 마스크를 기부했다.

마스크 수여식을 마친 후, 박수 소리와 함께 양천구청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감사 인사와 칭찬을 듣게 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한때 봉사하기를 꺼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했던 과거에 많이 느꼈던 마음이 생겼고, 지금까지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느껴지지 않고 허전하기만 했던 내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마치 옛 친구를 보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따뜻함의 출처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하다 나는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

남을 도우며 열정과 노력으로 봉사를 하면서 나는 깨달았다. 배려와 봉사의 삶을 살면 그 무엇보다 더 값진,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신뢰의 따뜻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봉사활동은 <수오재기>를 쓰신 정약용 선생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던 참된 '나(吾)'를 되찾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나(吾)'가 주변의 탐욕스런 눈빛과 소리에, 코로나19의 위협에도 달아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들 때 쓰던, 가끔 내 손가락을 따끔하게 하던, 따갑고 견고한 시침핀으로 단단히 고정하여 더욱 배려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며...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록 세상이 무심하고 잔인하다고 느껴진다 해도 사실 우리의 주변엔 지금도 남을 위해 봉사하며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코로나의 시련이 곧 지나갈 것이라는 격려의 말을 남기며, 나의 짧지만 긴 이야기를 마친다.





30년 뒤의 나에게



장휘령

30년 뒤의 장휘령에게

안녕? 나는 2020년도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의 장휘령이야.

지금의 나는 얼마 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었어.
지금은 일주일에 하루만 학교에 가고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친구들과
과 이야기도 하기 어려워.

너가 살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에는 코로나 백신도 개발되어 사
람들이 자유롭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놀 수 있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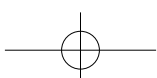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지금 2020년도에도 사람들은 서로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어.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를 만들어서 마스크를 사러 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가
격리하는 사람들 집 앞에 용기를 내서 음식을 갖다주는 것도 자원봉사로
하고 있어.

아마도 30년 뒤에는 코로나를 함께 이겨낸 이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겠지?

사람들이 서로 돕는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

오늘도 파이팅!





아빠 코로나19가 뭐예요?



양준서

아빠 코로나19가 뭐야?

응, 코로나는 무서운 전염병이야

아빠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걸리면 죽을 수도 있지

아빠 코로나는 왜 생기는 거예요?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돼서 오는 거야

아~~~그렇구나

아빠 코로나 병원 에프킬러로 뿌리자

왜??

바이러스 죽이게요~~

아빠 코로나 어떡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응!! 백신을 개발하고 있어!! 개발되기 전까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잘하면 예방할 수 있어

아~~~그렇구나

오늘도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봉사하시는 우리 아빠

파이팅!!



코로나19 함께 이겨내보아요!



이정연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모두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등교하고 나머지 요일은 원격수업으로 대체됩니다.

원격수업으로 학교수업을 듣다 보니 질문을 해도 선생님께서 확인을 하지 못 하시는 경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수업이 지루해지는 경우, 학생이 수업을 잘 들었는지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가지 못하는 학교에서도 열 체크, 가림막 치기 등등의 엄격한 방역수칙 때문에 매우 답답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갑갑함을 해소하기 위해 친구들과 놀려고 해도 내가 가는 곳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고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기도 해서 놀 공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19를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빨리 코로나19를 이겨내서 이런 어려움도 곧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해도 조금씩 참고 모두가 함께 방역수칙도 잘 따른다면 언젠가는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파이팅!!

자가격리

정여빈

설움이 자욱자욱
발치에 머문다

희뿌연 세상 속에
찾으려 애쓰는 이야기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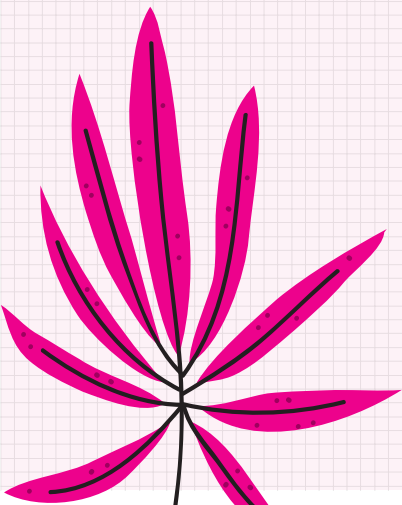
이기려고 이겨내려고
안간힘에 지쳐 있는 그대

작은 공간 속 터 잡고
혼잣말에 하루를 보낸다

보고픔
그리움
참아내고 살아내는 그대

내 달려가리다
힘겨운 시간 보낸 그대에게

내 달려가리다
두려움 견뎌낸 그대에게



나의 사랑 어머니

박동매

어머니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결혼하고 자식이 생겨도 아직도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지금도 그 사랑 식지 않고 자랑할 정도로 사랑해주고 있는, 나의 딸바보 어머니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내가 양천구 마을공동체에서 활동한 지 3년 차가 되어가도 마을공동체가 무엇인지 설명해도 모르고 보여줘도 모르는 엄마였다. 양천구 곳곳에 동네 번쩍 서에 번쩍 나타나고 시도 때도 없이 마을공동체로 바쁜 나를 보면 마을공동체 왜 하나고 푸념하던 엄마였다. 그러다가 이번에 양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위캔두'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드디어 7회 차를 우리 동네 용왕산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내가 엄마에게 그냥 산책 삼아, 아이들 데리고 운동 삼아, 바람 쐬 겸 놀러오라고 하였다. 엄마는 딸이 하니까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시간을 맞추고 아버지와 울케를 동원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용왕산에 왔다. 함께 밸런스 워킹도 하고, 컵타도 열심히 하고, 코로나로 인해 단절된 이 기간 사랑하는 사람이나, 보고 싶은데 못 보는 사람이나, 응원하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나 그림으로 마음을 전하는 타임일 때 멀리서 엄마를 보니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는 것이었다. 일밖에 모르는 엄마가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그럴까 하고 곁에 살며시 가보았는데 콧마루가 찡하였다. 큰 하트 안에 작은 하트가 가득 그려져 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적혀 있었다. 애써 나오는 눈물을 참고, 자리를 떴다. 그러다가 사회자가 엄마를 인터뷰할 때 엄마는 큰 소리로 자기가 쓴 글을 읽었다. "사랑하는 우리 딸 동매야 사랑한다." 저 멀리 뒤에 서 있었지만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수없이 사랑한다고 말해도 말해도 그렇게도 하고 싶을까 용왕산 큰 운동장에 찌렁찌렁하게 마이크를 타고 우리 딸 사랑한다는 말이 울려 퍼졌다. 함께했던 다른 선생님들도 엄마가 그리운지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고, 또 어떤 선생님은 엄마가 직접 와서 딸을 응원하니 감동이라며 기뻐해주었고, 또 어떤 선생님은 엄마가 보고 싶은데 못 가보고 있다며 부러워하였다.

언제나 딸이 자랑스럽고, 딸이 봐도 봐도 또 보고 싶은 우리 엄마, 나도 엄마를 사랑해~~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세계를 이기는 힘이 생기니 여러분도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을 생각하며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힘을 주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 코로나를 이겨내자. 파이팅!

행복 바이러스 상



마스크



양재춘

오늘 예식장에서 일이다. 한 어르신이 “마스크 파는 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깜빡하고 갖고 오지 않아서 입장이 안 돼요.” 하며 당황하여 발을 동동 구르고 어쩔 줄 몰라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모른 채했다.

마침 내 가방에는 항상 갖고 다니는, 내 손으로 만든 새 마스크가 있던 터라 조용히 다가가서 전달했더니 너무나 감사해하고 고마워한다.

불과 몇 달 전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분이 1월 20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란 질병에 국내 첫 번째 확진 환자로 판정된 것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는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와 2015년 중동에서 발생한 메르스를 우리는 슬기롭게 잘 견디고 이겨내었다. 하지만 이번만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든다. 우한이란 거대 상업 도시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오고가면서 감염 확산이 늘어났고, 우리나라도 2월에 대구에서 신천지로 인하여 집단 발생, 하루에 100여 명이 넘더니 3월에는 400~500명이 넘었다.

2월 23일에는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이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외출 자제를 하자 모임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졌다.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각종 모임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마스크 없이는 외출이 되지 않으니 마스크를 사는 일은 전쟁 아닌 전쟁이 되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고, 줄 서는 사이 또 감염이 이루어지는 현상까지 가자, 약국에서 출생 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를 판매하는데도 불과 몇 분이면 동이 나기 일쑤였다.

이 시점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간호사 자격증이라도 있으면 병원으로 가서 봉사라도 할 텐데~.

뉴스를 접하니 지방의 어느 단체에서 천 마스크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미담이 있었다.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서울에서도 있으면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다.

마음이 통했는지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힘내라 양천!」면 마스크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해서, 얼른 신청을 하였다.

500개를 신청해 놓고 바느질을 해보니 2시간이 걸리는 것이었다. 도저히 바느질로는 감당이 되지 않길래, 마침 며느리가 혼수로 가져온 미싱이 있어서 빌려다가 3차까지 공정을 마치고 내가 있는 양천구 새마을부녀회에서 미싱 6대를 가지고 하자 이틀 만에 마칠 수가 있었다.

세상 나고 처음으로 미싱을 했다. 사실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하는 것을 눈여겨 보기만 했지 직접 하는 것은 처음이라 며느리에게 강습을 받고 해보니 그리 어렵지 않게 됐다.

전달하고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마스크 만드는 것만 생각이 났다.

그러던 차에 아직도 재료가 남아 있다는 말에 얼른 200개를 더 신청하여 만들어서 전달했고, 집에 있는 손수건을 가지고 재단을 하고 내 것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미 재단한 것을 만들 때는 박음질만 하니 쉬웠는데, 직접 도안과 재단을 하고 박음질을 하려니 더욱 시간이 걸렸지만 애착이 갔다. 하나하나 만들면서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기쁨은 받는 기쁨보다 더욱 컸다.

마지막으로 또 기회가 왔다. 대안학교에서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하여 100개를 더 만들 기회를 가졌다.

한창 마스크 대란일 때 큰며느리는 소독제를 사서 택배로 보내오고, 작은며느리는 마스크 한 장에 5,000원씩 주고 사서 보내왔다. 그런데 내가 직접 마스크를 만들고 손 소독제를 만들어서 자녀에게도 줄 수가 있고, 이웃에게도 줄 수가 있었다.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소독제만이 아니라 행복 꾸러미(생활용품, 생필품 등)를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고, 반찬도 재료를 사다가 직접 만들어서 수급자에게 전달했다.

지방 농촌에서는 마늘 캐는데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농사일을 거들었는데, 지금은 외국인 입국이 쉽지 않아, 일손이 부족한 터라, 하루 마늘을 캐보니 농촌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체험도 했고, 진정한 값을 줘야 함도 깨달았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변하였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환자는 끝나지 않고 이로 인해 몇 달간 지내다 보니 모든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

학교는 휴강에서 인터넷 강의란 것이 생기고, 떨어져 사는 부모 자식 간에도 거리두기로 만나지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살이 확찐 자가 돼간다.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가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수시로 통화도 해본다.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생활을 한 분들과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애쓴 모든 의료진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분들이 있기에 많은 환자들이 완쾌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지 않았는가.

어서어서 코로나19야, 물렀거라!

함께 이겨낼 오늘,
그래서 더 값진 내일을 위해 힘내세요!!

이선미

1월 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을 덮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만 해도 내 일이 아닌 것 같았다. 2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큰아들의 졸업식에 부모님들의 참석이 어렵다는 소식과 함께 홀로 졸업을 하고 온 아들을 보며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몸소 느끼기 시작했다. 얼음뎡놀이처럼 모든 게 그대로 멈춘 것 같고 얼음이라고 외친 나를 아무도 뎡이라고 쳐주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처음엔 집에서 아이들과 멍때리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3월 2일 학교 등교가 미뤄지면서 우린 스스로 할 일을 찾기 시작했다.

먼저 매년 참가하는 3.1절 101주년 손 글씨 릴레이에 아이들과 함께 참여했다. ‘함께 이겨낸 역사, 함께 이겨낸 오늘,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라는 문구를 정성스럽게 써 내려갔다. 손 글씨를 쓰면서 진심으로 그리되길 기도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을공동체 릴레이 명랑 캠페인 오후공(오늘 하루도 마을공동체의 힘으로!) 때문에 마을공동체 이야기방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9시 제일 먼저 자신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함께 즐기며 우리 가족도 참여해볼까? 하고 용기를 내어 3월 5일 오전 9시에 우리 가족의 손 글씨 릴레이 사연을 이야기방에 올렸다. 어느새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셨다. 게다가 그 날의 오후공 주인공으로 뽑혀 대형 강낭이를 선물로 받았고 그것 또한 아는 가족들과 나눠 먹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 가족의 집콕 생활은 점점 더 다양한 이야기가 되어갔다.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 기후 위기 비상 행동 등샷 챌린지, 불 끄고 한석봉 챌린지, 덕분에 챌린지, 맑은 공기 새로 고침 챌린지 등 각종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다. 재미로 시작한 챌린지는 더욱 의미 있게 변화되었고,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챌린지는 우리 가족에게 환경 지킴이로서의 다짐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잠시멈춤을 이어가던 중에는 아이들과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각종 놀이를 해보기로 했고 삼시 세끼를 집에서 해결하면서 아이들과 집콕 요리를 하나씩 해보기로 했다. 고요 속의 외침, 스피드 퀴즈, 전주 듣고 노래 맞추기, 초성 게임, 빙고 게임 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 놀이를 하며 가족 간에 대화 시간도 늘고 서로를 이해해주며 한 뼘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요리실력을 나뉠 뽀내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마련되었다. 사먹는 걸로 알았던 호떡, 계란빵, 초

콜릿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고 이것저것 요리에 도전을 하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며 새삼 뿌듯했다. 그렇게 요리를 하던 중에 친환경 꾸러미 소식을 들었다. 친환경 학교 급식을 납품하던 생산 농가가 학교 급식 중단으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생산 농가도 돕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신청했다. 편지와 함께 도착한 친환경 꾸러미는 우리 집 건강밥상을 책임져주었다. 뉴스에 나오는 땀 범벅이 되어 힘들게 봉사하는 의료진들의 마음이 통했을까? 여기저기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우리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기 시작했다. 먼저 양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힘내라 양천!」 2탄 4+1 면마스크 나눔 캠페인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면마스크를 제작하고 아이들에게 전달된다고 하니 의미 있는 행사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손바느질을 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카드에 담아 보았다. 우리가 만든 면마스크를 쓸 이쁜 아이들을 생각하니 기분이 살랑살랑 좋아졌다. 이런 감정이 나눔의 기쁨인 건가? 내친김에 아이들과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께 보내는 손 편지를 써보기로 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베풀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서 아이들의 사진과 함께 보냈다. 작은아들의 편지에는 ‘힘내세요’로 4행시가 써 있었다.

힘 : 힘드시죠?

내 : 내일은 분명 나아질 거예요.

세 :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들 덕에

요 : 요즘처럼 힘들고 고된 하루를 이겨낼 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의 글에 진심이 담긴 것 같아 내 마음도 뭉클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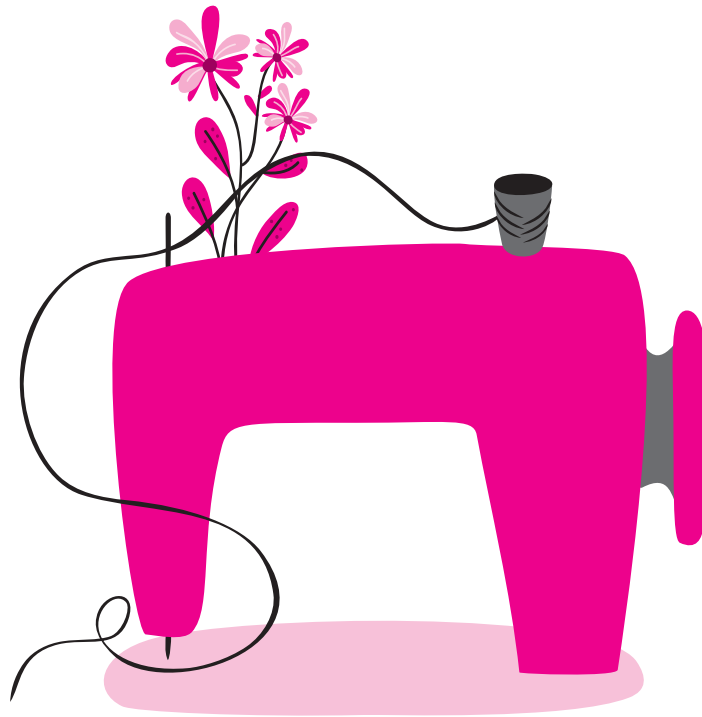
그렇게 시간은 흘러흘러 5월, 슬슬 마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잠시 이별했던 별별마을학교도 텃밭가꾸기로 활기찬 움직임을 시작했고 놀이터 축제로 매달 한 번씩 모이던 핫소스 봉사단도 안전한 놀이터 만들기로 놀이터 생활 방역 봉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양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위캔두’마을 응원 캠페인이 시작되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온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앞으로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두드림을 함께하고 있다. 신월공원에서 열린 ‘위캔두’ 첫 행사에 별별마을학교 친구들과 함께 참여했다. 밸런스 워킹으로 에너지를 팡팡 충전하고 별별마을학교 송기문 선생님과 함께 <코로나19 퇴치송>에 맞춰 컵타 연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광목천에 응원의 메시지를 정성껏 담아 모두에게 힘이 되어주었다.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 요즘 우리는 움추리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나도 매달 한 번 이상의 헌혈을 통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눔을 이어갔고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고자 SNS에 응원의 메시지도 남기고 자주 찾아가 이야기도 나누고 음식을 포장해오기도 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는 게 어찌나 행복한 일인지 모두가 힘든 시기에 깨닫게 되었다. 2020년 특별한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긍정의 에너지로, 선한 영향력으로 더 값진 미래를 만들어 내길 바라본다.

P.S :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베풀을 몸소 실천하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방역자, 청소 종사자, 소방대원 여러분 ~ 힘내세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바로서기

유지미

사람들이 줄을 섰다
놀이공원이 아닌데
로또 명당도 아닌데

사람들이 지나가며 묻는다
무슨 행사를 하길래 줄을 이렇게 서 있나요?
백화점 앞에 안개처럼 모인 사람들
아득하다

가족끼리 온 사람들
혼자 온 사람들
친구랑 온 사람들
우리는 안전한 삶을 위해
이 자리에 안개처럼 모였다

새치기하는 사람이 없다
상권 방해라고 줄을 비키라는 사람도 없다
줄이 길다며 투덜거리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안개가 아닌 성단이다
어느새 앞뒤 사람들끼리
제로페이 사용법을 공유하고 있다

이 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소원을 모아
각각 별이 되어 모였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묻는다
즐의 시작점이 어디인가요
즐은 이 동네를 한 바퀴 돌 기세로 걸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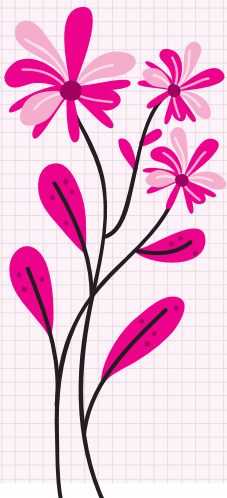
마스크를 모두 사고
저녁이 되면
별들은 흩어진다
별들이 흩어진 자리에는
작은 생명의 빛이 반짝거리고 있다

그 빛은
모두가 멈춘 세상에 대한 대답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면
반짝이고 있는 것들
지나쳐 온 것들에 대한 반성
삶에 대한 의지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

나는 넘어졌지만
무릎을 털고 일어나
사람들이 놓고 간 빛을 바라본다
바로 서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다

한 아름 안고 간 빛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거리를 둔 채 나눠준다

이렇게 하면 나아지겠지요
이제는 우리
극복할 수 있겠지요





입, 눈, 마음

유우상



“[입]을 막았습니다.”

2020년 2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사람들이 입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 대란 속,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목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읽고, 생각하고, 쓰고, 말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겨울을 시작으로 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말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스크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2월. 겨울의 끝자락에 대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었기에 경제적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처음 보는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이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돼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재난영화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극도의 혼란과 공포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지금의 요일제와 공급 체계가 없던 당시, 무질서 속에서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운’이었습니다.

가르칠 아이들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출근해서 자리를 지키던 그 날, 제게도 운이 따랐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길을 걷는데 양천문화회관 근처 OO약국 앞에 갑자기 긴 줄이 생겼습니다. 대열에 합류했고 약 40분을 기다린 끝에 마스크를 구입했습니다. 끼니보다 귀했던 첫 번째 보건용 마스크를 그렇게 얻었습니다.

대단한 보물이라도 얻은 것처럼 만족해하던 100여 명의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누구보

다 힘겹게 긴 기다림을 마주한 약사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날, 그 거리, 그 기다림 속.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땀 흘리는 그분의 눈망울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 날 이후, 땀과 눈물이 뒤섞인 많은 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비로소 [마음]이 보입니다.”

어느새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되었건만,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불편은 그대로지만, 불평은 줄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아이들의 목소리를 이전만큼 듣지 못하지만,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었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야 상대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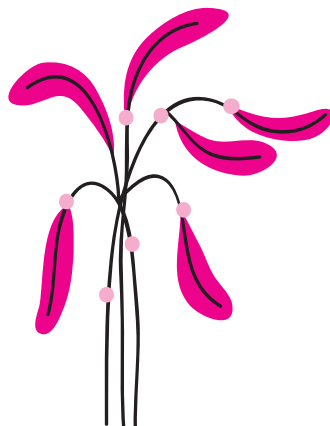
나, 너, 우리의 마음이 가까워졌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더 커졌지만, 건강에 대한 걱정에 매일 불안하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시간이 무사히 지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입은 막았지만, 대신에 눈을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서로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입가에서 마스크가 사라져도 눈은 계속 보았으면 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움만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진감래, 전화위복, 배려와 존중, 그리고 감사라는 선물 같은 단어들이 백신처럼 남았기에 참 고맙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우리 모두 덕분에]입니다.

“코로나 전쟁의 최전선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는 의료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도움의 손길을 뻗는 수많은 여러분, 이 시간을 견디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양천 구민 여러분, 우리 모두 덕분에입니다.”



함께하면 이겨 낼 수 있어요

유재경

서너 달 전쯤에 어느 날 휴대폰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3년 전 밸런스워킹 지부를 운영할 때 진로 체험 학습장으로 수업을 했던 인연으로 만난 최영경 선생님의 전화였다. 몇 년 전의 잠시 인연이었을 뿐, 사업장을 정리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었던 터라 자세한 기억은 없었지만 반가웠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강의 일정이 취소되거나 잠정적인 중단 상태가 두 달 이상 지나고 있을 때라 최선생님의 전화는 무료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나에게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었다.

첫 모임에서 처음으로 마을공동체라는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민 스스로가 마을 일을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이며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면마스크를 만들어 나누며 여러 가지 나눔 활동을 지원한다는 설명을 듣고 좋은 느낌을 받았다. 그 후 몇 번의 모임을 참석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 캔 두’라는 이름으로 양천구에 있는 공원으로 찾아가서 이웃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리 마을 운동회’ 프로그램을 고민하며 9회 차를 준비했다. 좋은 취지로 프로그램을 준비했지만 솔직히 ‘이런 시국에 사람들의 참여가 있을까?’,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지?’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지만 첫날 신월공원에서의 감동은 잊을 수가 없다.

멀리서 지켜만 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발열 체크와 명단을 기록하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건전하고 건강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은 사라지고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다.

회 차를 거듭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전해오는 확진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우리 팀은 긴장을 늦출 수 없었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 철저히 준비하며 9회 차 파리공원을 끝으로 안전하고 무사히 그리고 우리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캠페인으로 막을 내렸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음료수를 사다주시고 또 했으면 좋겠다는 인사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시작이 비록 작지만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나는 주민들을 위해 희망을 주고 격려와 위로를 준다는 마음으로 ‘위 캔 두’ 캠페인에 참여했지만 오히려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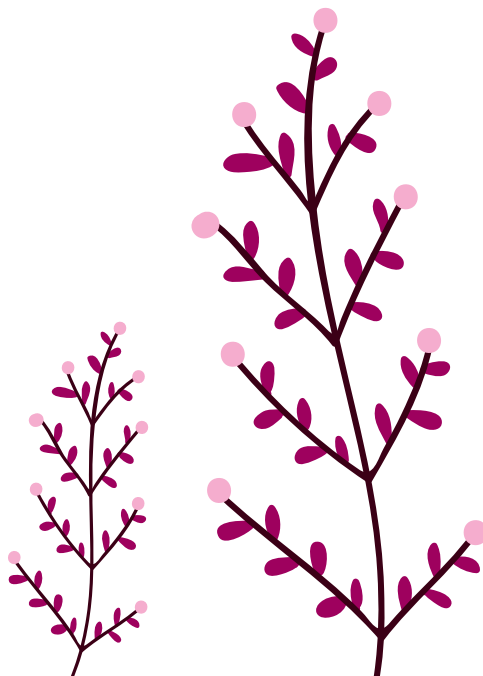
‘으라차차, 힘을 내!’ 마지막 순서에서는 광복천에 생각나는 사람에게 메시지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엄마가 딸에게, 어린아이가 의료진에게 보내는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는 눈물이 찔끔 날 만큼 감동이었다.

예쁘게 그려진 광복천을 9회 차 마지막 날 파리공원에 걸어서 다시 한 번 그때의 감동을 나누는 피날레로 마무리가 되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공원마다 같은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 ‘또 언제 해요?’..

모이고 함께하는 것을 못하는 세상이 되면서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희망을 나눌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다.

준비하시느라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신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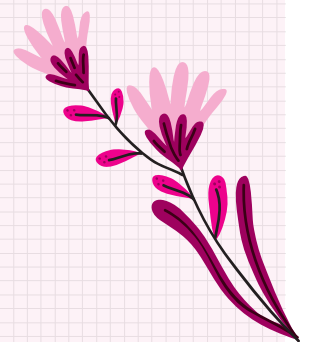
일상이 잠시 정지 두렵고 무섭구나
갑자기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구나
조심히 살펴보아도 구별하기 어렵네

모두가 갇혔구나 고약한 바이러스
마스크 갇갇해도 지금은 생활 필수
산다라 살아간다면 다시 올까 일상이

그립다 마음놓고 다닌 지 언제인가
이제는 익숙해진 생활 속 거리두기
우리가 함께하려면 마음 백신 필요해

손 소독 체온 점검 어디든 기본일세
조심히 거리 두니 마음이 멀어지네
마음속 거리만큼은 더 가까이 가까이

더 많이 변해가는 우리의 세상살이
하루가 지날수록 조금씩 변해가네
달라진 일상생활이 썩썩해진 어느 날



* 산다라: '굳세고 깨끗하게'라는 뜻의 순우리말



가족 같은 이웃은 우리 아이의 백신 ^^



이정화

세계는 올해 입시를 치르게 될 고3 아들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우리 아들을 포함한 많은 고3 친구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코로나 19는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조심해야 하고, 모든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사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사춘기도 넘어가며 공부에 정진하는 아이들인데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까 싶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못 보내면서 아이와 하루종일 같이 있어 보니 처음에는 이게 가족이구나 싶고 나름 괜찮았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힘든 상황이라서 이제는 저 또한 많은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다른 엄마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도 아이들 걱정뿐이었습니다. 이제 고3 엄마들은 무사히 수능만이라도 치를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라서 개학도 연기되고 올해 5월 5일, 우리 가족은 아이에게 맛난 음식 선물로 오래간만에 외식을 결정했습니다. 친한 지인으로부터 고3을 위한 행사가 있음을 알게 되고 고3들이 있는 카오톡 대화방에 정보를 올렸습니다. 다들 일어나지도 않고 자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나중에 알고 보니 많이 다녀갔다고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양천구 마을공동체에서 고3 수험생 및 소상공인을 위한 마을 응원 캠페인으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아들과 같은 고3 수험생에게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준비해주신 선물 꾸러미와 응원 메시지는 어린이날에 공부하는 아들을 위로하고자 외식하러 나온 우리 가족에게는 신선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식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도 양천구 마을공동체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여를 꺼려 하고 귀찮다고 생각했던, 우리 아이의 친구들도 잠깐씩 들려서 고3 응원 종합선물세트도 받았다고 연락도 오고 하니 엄마들도 우울했던 마음을 조금은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스트레스 날려봐~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며 두더지를 열심히 두드리고, 나, 너, 우리를 위한 '괜찮아! 잘될 거야~!' 응원 메시지도 적어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위로의 토닥거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나중에 자신의 아이도 양천구에서 키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이번에 고3 위로 캠페

페인을 참으면서 더 확고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학부모로서 생각하지 못했던 양천구 마을공동체의 배려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고3 아이들만 위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양천구를 사람이 살만한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코로나로 인해 멈추었던 강서고 ‘실버♡미소 보드게임 봉사단’의 동아리장인 우리 아들이 비대면으로 봉사 동아리 활동을 다시 진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아닌 누군가에게 위로받았을 때 느꼈던 그 마음이 지난해 꾸준히 봉사를 가던 경로당 어르신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그분들을 생각나게 했나 봅니다. 그래서 급히 아이디어를 내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비대면식 키트로 효드림 카네이션 코사지와 카네이션 볼펜 만들기 봉사를 기획하고 강서고 3학년 봉사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키트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카네이션 코사지와 볼펜을 만들 때 동아리 학생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지역 어르신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조부모님을 근처에서 모시고 살면서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런지 어르신들과 서로 불편함 없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이와 조부모님 모두 큰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며 지냈습니다. 지금은 두 분 모두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항상 어려운 길을 갈 때나 힘든 일이 생기면 늘 기도해주셨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싶을 때 함께 한 추억들이 많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스스로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 아이를 지켜보는 것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기를 꺼리지 않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지금처럼 수많은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바쁘고 힘든 시대에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교류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결코 남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완성해 나가고 있는 카네이션 코사지와 볼펜을 지역 어르신들께 전달하러 갈 날을 고대하고 있는 이유가 아마도 제 마음 속에 나의 친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이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봉사 활동이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그 마음을 되돌려 위로를 줄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나게 하여 미래에도 끊임 없이 이어지는 봉사정신의 반석이 된다면, 우리는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가까운 우리 모두에게 서로 가족 같은 이웃이 되어준다면 우리 각자의 이웃들은 지금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의 행복과 삶의 질을 지켜주는 백신이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해맞이 마을은 통장들이 지킨다~!!!

신월7동 통장협의회

신월7동 통장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회장 김영숙입니다. 주민과 행정기관의 징검다리를 하고 있다는 보람으로 10년 넘게 통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한 달에 2번 열리는 통장회의는 양천구의 소식과 상황을 알 수 있는 소식지와 전입 주민 확인 등 통장 업무가 진행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는 상황에서 통장회의는 주민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내는 동주민센터 등 행정기관과의 협력을 이루는 접점이 되었습니다.

먼저 1월과 2월에는 확산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예방수칙을 알리는 안내문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달하는 등 그때까지 잘 몰랐던 예방법을 전파하고 홍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계단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느라 다리에 근육이 뭉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우리 신월7동 해맞이마을 주민들의 건강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34명의 통장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그럼에도 꺾이지 않는 코로나19의 기세에 가장 위험한 대상자는 어르신들과 노약자들이었습니다. 뉴스나 언론에서 코로나19에 취약하고 치명률이 높다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바로 우리 해맞이마을 신월7동이기에 더욱 긴장되고 염려되었습니다. 양천구 인구통계를 보니 우리 동은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 비중이 2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 염려 중에 한 가닥 희망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께서 양천구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 협업을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덴탈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000여 명의 어르신들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마스크를 전달한다는 소식이 아픈 무릎보다도 기쁨을 주었지만 전달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 빨리 전달해드리기 위해 마스크 생산량에 맞추어 80세 이상, 75세 이상, 70세 이상, 65세 이상, 그리고 임산부와 중증 장애인 등 네 차례 이상 나누어 진행된 과정은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릎 아픈 건 둘째 치고, 어르신들을 만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마스크 전달을 위해 어르신들을 방문할 때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고맙고 감사하

다며 건강하라는 덕담까지 해주셔서 저를 비롯한 통장들이 오히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점점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일시에 구매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는 마스크 수출을 중단시키고 국민들을 위해 농협과 약국을 통해 공적 마스크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약국에서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는 진풍경이 나타났고 우리 해맞이마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3월 초쯤 급하게 신월7동주민센터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약국의 공적 마스크 판매를 지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의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활동이 잠시 꺼려지기도 하였으나 통장 활동도 뜸한 데다가 자치위원 등 전반적인 지역 봉사 활동이 중단된 시기라 봉사의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3월 11일부터 약국 지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5시에 출근하여 2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약사님과 함께 칩칩한 눈을 비벼가며 컴퓨터로 마스크를 사시는 분들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줄을 세우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천구에서는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사는 시간을 오후 6시로 일치시켜 주민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점점 마스크 대란이 잠잠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사는 주민들도 불안해하며 짜증을 내는 경우도 많았는데 공적 마스크 판매가 정착되니 줄을 서는 주민들도 줄어들고 약사님과 저도 편안하게 마스크 판매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판매라는 말보다는 마스크를 봉사하며 공급하였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약사님들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우리 지역 내 그리고 양천구와 전국의 약사님들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점점 확진자가 많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의나 모임이 중단된 상황에서 통장들이 봉사할 곳은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면마스크 만들기 캠페인(힘내라 양천!)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 통장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면마스크 만들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자그마치 300개의 면마스크 재료를 받아들이고 생각보다 많은 양에 당황하기도 하였지만, 통장협의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손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바느질로 만드는 면마스크는 모양도 일정하지 않고 무엇보다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스크 하나를 만드는 데 1시간 이상 걸리고 울퉁불퉁한 모양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통장협의회 부회장님이신 김순자 통장님께서 재봉틀을 구매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심지어 통 크게 자비로 구매하였을 뿐 아니라 부회장님 자택 공간을 내주셔서 바느질 작업이 엄청난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밤 12시까지 웃고 떠들며 재봉틀을 돌리며 면마스크를 만들다 보니 학창 시절 여고생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스케일이 커진 300개의 면 마스크를 양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전달했고,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는 양천

구의 복지 시설과 동주민센터를 통해 취약계층의 어르신, 아동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레 시작한 일이었지만 모든 활동이 중단된 시기에 주민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뿌듯하고 기분 좋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 때 통장과 주민들이 함께 면마스크를 만들어 양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전달함으로써 더 힘들고 필요한 가정에 전달될 수 있을 때 뿌듯함을 느껴 제 자신이 행복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가 창궐한 시기에 어버이날이 돌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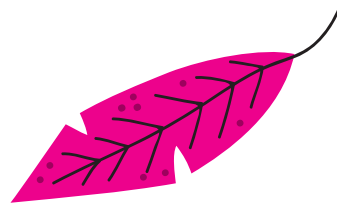
매년 우리 해맞이마을 자원봉사캠프(캠프장 황미혜)에서는 양천구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한 달 동안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어버이날 당일 아침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포함 지역 내 어르신들께 달아드리는 봉사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 코로나19로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장형섭 신월7동 동장님과 의논을 통해 마스크 착용 등 서로 조심하면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통장 수당을 회비로 모아 어르신들께 전달할 아몬드호두 롤케이크도 샀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휴대용 손소독제도 함께 전달해드렸습니다. 자녀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쓸쓸한 어버이날을 보내시던 어르신들은 눈물을 보이시며 너무나 좋아하셨고, 어떤 분은 평생 처음 카네이션을 받아본다며 감격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자원봉사자들과 우리 통장님들은 작은 봉사지만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수그러들기는 커녕,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고, 또다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재난생활비 지원 안내문을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최소 9,000세대에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단지 배포하였고, 재난생활비를 접수하고 안내하는 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짜증을 내시는 주민들도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재난생활비에 대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기뻐하며 즐겁게 신청하였습니다. 주민들이 갑자기 몰려드는 시간대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잠깐 부담감을 느꼈으나, 모든 주민들이 질서 정연하게 안내에 따라주어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에 함께 참여한 저와 통장님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3주간의 활동이 끝난 시점에 서울시 재난생활비에 이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제목이 다르지만 또다시 9,000세대에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저와 통장님들의 무릎은 아팠지만, 지역 경제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와 협업하여 서울시 재난생활비 안내하는 활동이 정부 지원금을 안내하는 활동으로 연장되었고, 이 글을 쓰는 요즘 시기에도 정부 지원금 신청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통장이 찾아가면 짜증내고 화내는 주민들도 있지만, 우리 해맞이마을 장형섭 신월7동장님과 합

계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이 지역을 더 살기 좋고 사람냄새 진동하는 마을로 가꾸어나가는 것이 저와 통장님들의 작은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으로 가는 길목



전종만

나는 그 곳에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 속에
마스크 구입을 위해
수백미터나 되는 줄에 서 있는 사람들
너무 힘들어 쪼그려 앉으신 어르신
집밖이 위험하다는 방송에
답답한 조그마한 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나는 그 곳에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애쓰는 사람들 속에
온 몸을 칭칭감고 더위를 잊은 채
진료를 하고 계시는 의료진
무거운 방역통을 매고
여기저기 방역하는 사람들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말에
하루종일 고개숙이고
재봉틀질을 하는 사람들

나는 그 곳에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힘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재난기금 받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람들
소상공인분들 힘내라고
선불결제 착한결제 해 주시는 직장인들
1년 내내 아껴서 모은 동전
어려운 이웃에게 쓰여지기를 바라며
아낌없이 내 놓은 어느 초등학생

우리는 그 곳에서 함께했습니다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현장에
면마스크 만드는 공동체 안에
동네방네 돌아 다니며 방역하는 그 곳에
'위 캔 두' 외치는 마을사람들과

지금도 모든 것이 힘들지만
그 곳에 마을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섭다구요? 함께라면 이겨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전미이

전화가 왔습니다. “OO야, 냉면사리 사났으니까 가지고 가.”
동네 언니가 인천까지 가서 맛있는 냉면 사리를 가지고 와서는
전화를 돌려대네요. 이 집, 저 집.

그리고는 정작 본인은 녹초가 되어 늘어져 있고
마을 동생이 전화해 냉면을 가져다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와라, 가라, 배려 전화로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기어이 내가 가겠다 하고 나서야 전화가 잠잠해지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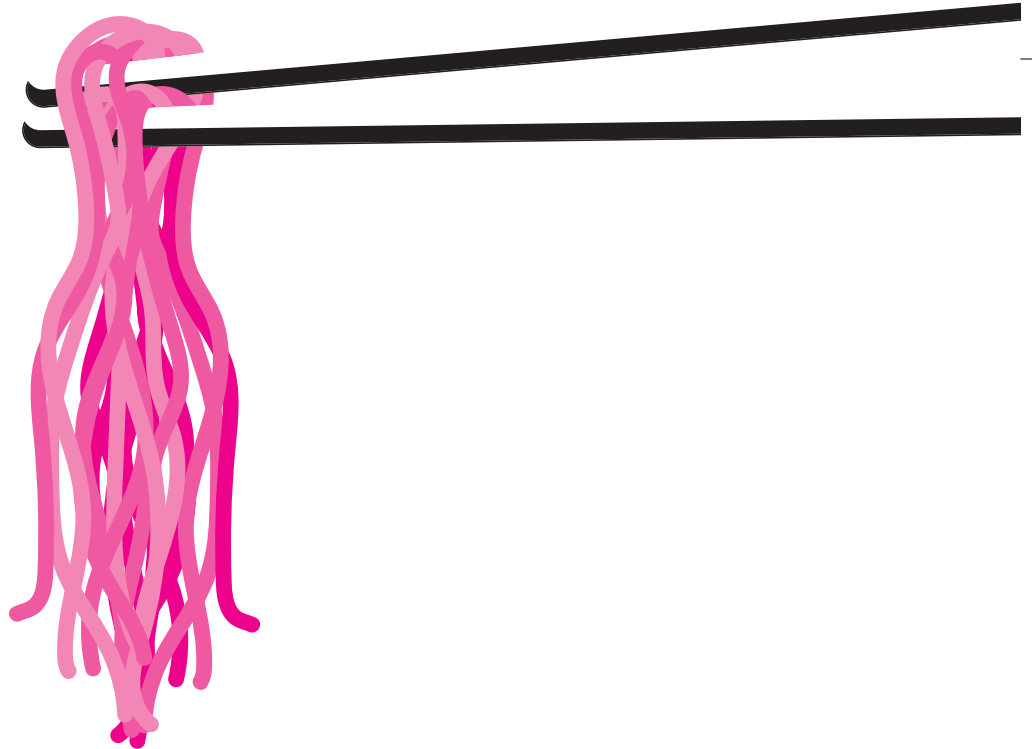
부랴부랴 선약도 뒤로 미루고~
또 다른 지인이 보내준 포장되지 않은 알콜 티슈를 나눠줄 요량으로 몇 봉지를
지퍼백에 담아 챙기고 머리 뒤편에서 아들이
“엄마 이런 거 너무 귀찮지 않아? 냉면 사리가 얼마나 한다고 그래?”
투덜대며 알콜 티슈를 차에 실어줍니다.
이건 뭐 냉면 사리 하나로 몇 명이 움직이고 코로나보다 더 전쟁입니다.
코로나 전쟁에서 이길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다른 무기를 얻으러 마실터로 향합니다.
마실터 가서 얻어올 무기는 우울을 날려버릴, 함께하는 소통이라는 무기입니다.

마실을 가니 코로나에 취약해 집에만 갇혀 있던 언니들이 모여 이렇게라도 만나니
숨통이 트인다고 하네요. 자녀들은 코로나 위험하니 나가지 말라 하고
혹여 나갔다가 자녀들 힘들게 할까 봐 온몸이 굳도록 집을 지키고 있는 언니들입니다.
서로 불편한 몸으로 음식을 만들고 먹고 웃다보니 시간이 지나가는 줄도 모르게 놀다 어두워진 길에
집으로 돌아왔네요.

모르시는 분들이나 어린 아들은 냉면 사리 몇 폰 된다고 난리냐고 하시겠지만
이 냉면 사리로 말할 것 같으면 몸이 많이 불편한 동네 언니가 마실 친구들을 위해
먼 곳까지 마다 않고 가서 가지고 온 정성 듬뿍 사랑 가득 냉면 사리랍니다. 코로나도 못 막은 마실꾼들
입니다.

가지고 온 냉면 사리를 냉동실에 밀어 넣으면 나오는 한기를 마음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가 밀어내
네요.

나 혼자가 아니고 마을공동체라면 코로나 그까이꺼 뭐!
너무 자만했나요?~~~~~ 오늘도 조심조심 코로나를 피해 동네분들과 소통을 하고 왔네요.
오늘도 코로나를 이겨 살아내고 내일로 가자구요~~





백신보다 100사



박은경

처음엔 늘 그렇듯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100일 동안 핸드폰으로 매일 사진을 찍고 단톡에 올리는

작업에 뭘 의미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중국 뉴스로 끝나는 줄 알았던 코로나19는 저와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정지시켰고 TT 기대에 부풀어 시작한 2020년 2월은 연기와 취소를 알리는

카톡만 지루하게 올려댔습니다.에잇~~~

그래도 여전히 100일 매일 사진에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매화 봉우리를 옳다구나 찍고 1시간도 못 버티는 나뭇가지의 쌓인 눈을

남들 눈치 보며 찍으면서도 ㅎㅎ.

매일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업은 그냥 심심풀이 여러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아! 코로나19는 그냥 지나가는 작은 사건이

아니며 올 한해 나의 삶을 통째로 멈출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순간.

매일매일의 감정을 표현하는 사진은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하고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있다는 감정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친구는 매일 남편과 먹는 건강 밥상을 사진으로 올리고

단톡 친구들은 사진을 보며 건강과 존경을 메시지로 올립니다.

안양천에 송어떼가 찾아온 그 날들에도.


제 핸드폰은 까톡, 까톡 올려댔습니다.

송어가 왔어.

송어가 뛰어놀아.

벌써 봄이야.

소리는 사진을 보내고 사진 속 숨은 메시지는 살아 있는 것이 재밌고



공감하는 것이 당연하고 같은 것을 같은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었습니다.

벚꽃 피는 계절 단톡으로만 만나던 친구들과의 첫 두등 모임 계획은

벚꽃 축제 철회와 벚꽃길 통제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ㅜㅜ

제가 아직 말 안 했지요.

우리 중의 여럿은 아직 얼굴도 모릅니다.

코로나19를 위해 애쓰시는 많은 의료진과 매일 매일의 코로나 상황을

알리고 행동지침을 정하는 공무원분들을 우리가 얼굴을 알아서

존경을 표하는 게 아니듯, 매일 100일 사진 동무들도 얼굴은 모르지만 존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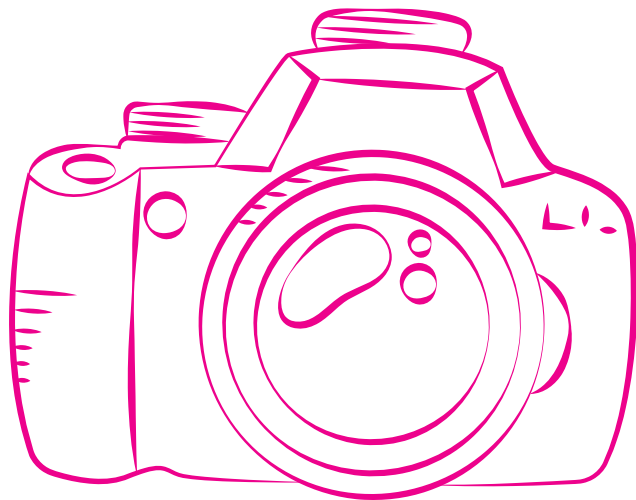
아기가 태어나 100일이면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구나’라며 축하해 주는 것처럼



아직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지만 지난 100일 동안의 사진을 통해 건강하게 코로나19를 이길 힘이 길러졌습니다.

매일의 나를 기록하고 매일 나를 표현하고 이해받는 100일 매일 사진 찍기


여러분들도 시작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에게 모든 코로나‘19+블루’의 백신은 100사였습니다.





코로나19 긍정마인드로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문희주

어느덧 신록의 푸르름이 짙어가는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입가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는 요즈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 양천구에서 꺾일 줄 모르고 겨울의 끝자락에 이어 꽃 피는 봄에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집에서 방콕!

봄의 절기 젖어보지 못한 채 꽃구경 나들이 없이 지나갔지요.



처음 대구에서 시작되어 서울 이태원 지금 현재는 서울 수도권, 김포,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양천구 등 경로조차 모르는 감염 경로로 확진자가 매일 쏟아져 나오며 겨울방학에 이어 이제 6월 학교들이 등교 시작 매일이 아닌 부분적으로 그동안 새학기도 맞이 못한 채 친구들도 그림고 공동체 생활하며 공부하던 일상으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길... 하루 빨리 회복되어 다 같이 노력하고 협력하여 일상생활이 되기 위해서 안전수칙 적극적으로 지켜 생활 속 거리두기-손 씻기-마스크 꼭 하고 불안정한 나날이 연속이지만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듯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달에 한두 번 아들 내외 손주, 손녀가 오면 가까운 신트리 공원, 안양천 생태계공원 등 자연의 섭리 속 체험하며 꽃, 올챙이 등등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이야기 속에 6살 손주가 하는 말 "할머니 할머니 민우는 커서 코로나 바이러스 박사가 될거예요."라고 합니다.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예쁘고 뿌듯하고 기특하지요! 온 세상 온 나라가 온통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랜 시간 지속되고 하니~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극복해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별일 없지?



양승완

별일 없지?
특별한 말도
특별한 수식어도 아니지만
일상이 되어버린 말

별일 없지?
자꾸자꾸 궁금함에
문게 되는 안부

별일 없지?
언제까지인지 기약 없지만
잘 지켜주길
잘 버텨주길

별일 없지?
모두가 함박 웃으며
서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꿈꾸는 그날이 오길...

진솔한 그 한 마디
별일 없길... 기원하며



함께하는 양천 마을공동체



최정아

혁,

세상에 이런 일이~~~

마스크가 필수가 되어버리고 자유로이 구매할 수 없는 세상이 오다니... ㅠ

상상할수 없었던 코로나19의 출연으로 우리들의 일상은 혼돈 속에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마스크가 없으면 외출을 못 하게 되고

기침이라도 할라치면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지난 1월 우한폐렴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어마무시한 바이러스가 왕관의 모양을 닮았다 하여 코로나 19로 명칭이 통일되고,

누구나 쉽게 살 수 있었던 마스크가 원가격의 두세 배를 더 주어도 살 수 없는 시기가 오고야 말았다.

나의 귀는 소머즈 귀인가...

옆 사람들의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

“우리 동네 장애인 자활센터 있자나~ 거기 장애인들이 마스크가 없어서 출퇴근과 업무에 지장이 많다네.”

“어머 장애인들이면 더욱 조심해야 할 텐데... ㅠ ㅠ”

순간

이분들을 어떻게 돕지??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궁리 끝에 양천 마을공동체 300인의 단톡방에 한 사람이 한 장씩!!

사연을 올려보기로~^^

혁,

이게 웬일!!

금보다 귀하다는 마스크를

너도나도 기부하겠다는 게 아닌가!

역시 '양천 마을공동체'라는 단어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과 감동이 행복의 고운 숨결로 다가온다.



귀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던 시기이기에

기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여 받는 것은 직접 다니기로!!

이들간에 걸쳐 신월동, 신정동, 목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받아온 마스크가 수십여 장에 이르고

꼬마친구들의 마스크까지 덤으로 흔쾌히 내어주셨던 천사의 손길들♡♡

길 위에서 기다리시며 음료수를 나눠주시고

마스크를 가지러 가는 시간에 데에 안 계실 것 같다며 아파트 우체통에 정성스런 메모와 잘 포장된 마스크, 그리고 정이 통한 커피 한 캔♡♡

이런 게 감동이고 감격인 것을~^^

그 커피를 그 음료수를 마스크를 기부하기 위해 밤의 길목에서 기다리시는 또 다른 천사들에게 다시 나누며 공동체의 단단하게 짜여진 그물처럼 우리들의 관계도 촘촘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들간 모여진 마스크로 우리 동네 장애인재활 홈 두 곳에 나누어 다시 기부를 하고^^

선한 영향력이었던가,

이 소식이 또다시 촘촘한 마을공동체의 관계망을 통하여 전해지고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알려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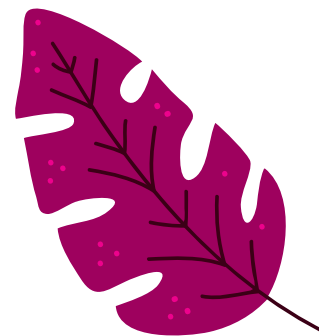
많은 양의 마스크를 다시 기부받고

당분간 마스크 걱정 없이 일터로 나가실 수 있도록

장애인재활 홈에 또다시 기부되고

심지어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청소년선도협의체에서도

마스크를 기부해주심에



우리 동네 나비남 분들에게까지 잘 전달될 수 있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서로서로 협력하고 합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양천 마을공동체의 소중한 브릿지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정을 쏟게 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한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준 300인의 단톡방 마을주민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인사를 드려본다.

마스크를 기부했다는 것보다

두세 배의 높은 가격에서 살 수 없었던 그 시점에서
선뜻 내어준 귀한 마음들과 선한 손길들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이런 분들과 짧게 만났던 이틀간의 시간들이 나에게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할 수 있는 힘ियो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이다.

마스크 한 장...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 그 마스크는 천금보다 귀했기에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일상의 불편함 속에서

양천 마을공동체가 일깨워준

‘함께 나누는 행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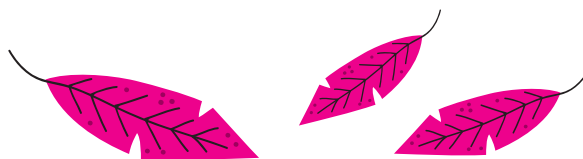
나 한 사람의 마음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찾아가 함께 나누는 소소한 행복이 되어주기를^^

일면식도 없었던 우리들이 마을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선한 마음과 행동을

아무 조건 없이, 아낌없이 주거나 받거나 할 때에

악보의 한 마디씩 감사의 선율을 그려나가는 어우러진 화음들이 되어가는 것이라 감히 장담해보며 모
두가 행복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마음 깊이 소망하여 본다♡♡♡





코로나19 극복 공동체 백신나눔



양천아이쿱생협

예기치 않은 일은 늘 소리도 없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예기치 않은 일은 우리에게 항상 힘이 들고 당혹스럽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 코로나19 재난의 파장은 확진자의 수와 사망 소식을 접할 때마다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19에 대해서 발 빠른 대응으로 재빨리 대처하여 참 다행이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많이 적응되고 놀라움도 많이 가라앉았지만, 아직도 손에 박힌 가시처럼 여전히 불편하기만 합니다.

양천아이쿱생협은 코로나19 상황이 큰 위기로 느껴졌습니다.

평소 조합원들이 30~40회 정도의 큰 모임, 작은 모임으로 모이고 있는데 감염병 상황이 조합원들과의 만남을 매우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정에서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합원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가 매우 필요하고 절박한 때에 양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면마스크 만들기를 제안해 주셨고, 좋은 일에 함께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 욕심에 200개를 생각하였으나,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100개만 만들기로 했습니다.

조합원분들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방법을 몰라 경로를 찾고 있던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면마스크 만들기 소식을 접하고 좋아하시며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셨습니다.

개인, 마을 모임, 동아리별로 도움을 주셔서 양천아이쿱생협에서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면마스크 만들기가 수작업이라 예상보다 제작 시간이(1개에 2시간 소요) 많이 걸렸지만, 모두의 마음은

부족한 솜씨나마 이쁘게 봐주시고 잘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주셨으며, 좋은 일에 함께하여 힘들었지만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양천아이쿱생협 내에서도 조합원들을 위한 면마스크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조합원과 아이들이 함께 만드는 면마스크 만들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일회용 마스크가 편리할 수는 있지만 그 편리함이 또 다른 환경오염이 되니, 면마스크 사용으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일에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면마스크 만들기가 조합원들의 호응을 얻으며, 지금도 천과 부자재를 구매하여 서로 면마스크 만들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양천아이쿱생협에서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면마스크 만들기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하시는 의료진, 직원, 자원봉사자들에게 힘내시라는 의미와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과 함께 자연드림물품(간식대용)을 양천보건소에 전달하였으며, 양천지역 보건의로 노동자 응원 간식 연대지원에서 추진한 기금 모금에도 참여하여 모여진 기금으로 서남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천구 보건소에 코로나19 응원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양천아이쿱생협에서는 관내 지역에 해마다 정기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고, 도움이 되는 일을 생각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나눔실천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기적으로 진행한 나눔을 기다리는 손길을 외면하기 어려워, 최대한 철저하게 위생을 지키며 청소년 반찬봉사 및 물품나눔, ‘독거남 사랑의 도시락’을 진행했습니다.

6달 동안 지역 내 한 부모, 조손가정, 어려운 가정 16곳을 선정하여 청소년 반찬봉사 및 물품나눔을 실행하고, ‘독거남 사랑의 도시락’ 행사도 조합원과 함께 잡곡밥을 포함하여 6가지 반찬과 과일까지 풍성하게 준비하여 도시락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30인 분의 도시락을 50스타트센터에 전달하였습니다. 반찬을 만드는 과정은 마스크를 착용하여 힘은 들었지만 서로 주의하며 진행하였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진행중이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전화나 카톡 등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함께한다면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기로운 코로나 고3생활을 보내고 있는 아들에게



이희숙

슬기로운 코로나 고3 생활을 보내고 있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두영아, 무더운 여름 마스크 착용하고 하루 종일 수업하고 있는 너를 떠올릴 때면 가슴이 찡하구나.

너무나 갑작스레 우리에게 다가온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 모습과 태도를 정말 많이 변화시켰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게 된다.

네가 고3이 되고 엄마도 너도 무언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개학연기가 지속되면서 불안감은 커져가고 그렇다고 대책 없이 바깥세상으로 너를 내보내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정해진 정답이 없기에 안개 속에 갇힌 기분이었던 것 같아.

두영아, 엄마는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단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겨움을 겪고 아픈 만큼 평범하게 이야기 나누고 만났던 일상의 행복을 깨닫게 되었고 함부로 했던 자연이 숨을 쉬게 되어 다행이지 않니?

고3이라는 조금은 마음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시간을 네가 나름대로 잘 계획해서 보내고 나면 한 뼘 성장한 너를 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어떠한 결과를 위해서보다 그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소중하게

간직하길 바란다.

또한 네가 이렇게 매일 등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의 노고도 잊지 말자.

희생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글귀를 어디에선가 본 것 같구나.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 너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기 바라며 그로 인해 네 주위가 밝은 세상이 되길 기도할게.

엄마에게 와 준 아름다운 보석 같은 내 아들 두영아~~ 네가 처음 내게 온 그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엄마는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난다.

그 마음으로 매일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믿으며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네가 하고 싶은 것, 네 가슴이 뛰는 것 실컷 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

고3 엄마가 처음인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잘 몰라 헤매기도 하고 엉뚱한 것을 알려주기도 할 거야. 미숙하고 부족한 엄마지만 널 위한 마음은 1등인 거 알지?

우리 가족 모두가 숨죽이며 너를 바라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꼭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하렴.

네가 먼저 네 자신을 사랑하고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을 갖길 바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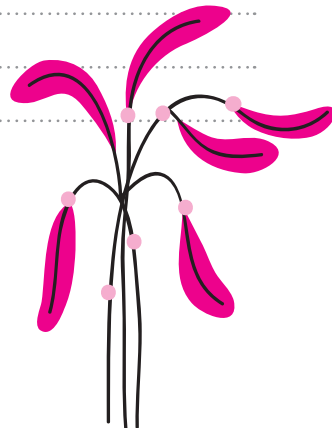
다시 한번 건강 잘 챙기고 남은 시간 조금만 힘내보자~~~

사랑한다는 말로도 다 표현되지 못하지만 그 말 이상의 말은 없는 듯하구나.

진심으로 슬기롭게 건디는 너의 고3을 응원하며 사랑한다♥

이공이공년 유월 이십하고 스물다섯날

많이 부족한 엄마가





우리 모두 함께 코로나19 이겨내자!



엄보미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 목동에 살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벌써 6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당시 곧 멈춰지겠지 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아이의 개학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저도 직장을 그만둔 상태라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도 학교에 가지 못하니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새벽에 자고 오후에 일어나는 일이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저도 현재까지 개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와 근처에 살고 계신, 얼마 전 골절수술을 마친 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 직장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0명이 되기를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아이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쉬면서 아이가 어떤 걸 원하는지 바쁜 엄마 때문에 말 못했던 부분이나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일만 하느라 관심을 가져주지 못한 마음과 그동안 신경써 주지 못했던 부분이 아이에게 미안해지면서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13년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집에서 간식을 만들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다른 친구의 엄마를 보면서 항상 일만 하는 엄마 때문에 속으로 부러워하면서도 집에 오면 아무렇지 않게 혼자 공부하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퇴근하고 오면 저는 늘 자느라 바빴습니다. 그저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처음으로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몇 개월 동안 직장을 다니지 못하면서 비록 생계에는 지장이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아이에게 해주지 못했던 맛있는 요리와 보드게임 집에서 영화보기 등 여러 가지 놀이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내년엔 중학교에 입학할 아들... 아들들은 좀 더 크면 엄마와 멀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현재 한참 사춘기가 진행되고 있는 아들에게 엄마와의 추억을 조금이나마 보내게 해준 것 같아서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던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 앉은 것 같았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더운 날 마스크 쓰는 것도 답답하

고 숨 막히고...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쉬는 동안에 그동안 바쁜 일상에 뒤돌아보지 못해서 놓친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루는 것도, 하나의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양천구 주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양천구 구청장님, 구청직원들, 주민센터 선생님들, 모든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한 분 한 분 친절하게 상담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지치신 분들께 나눠주는 지원금 설명 또한 감사드립니다. 양천구는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희 모두 강하게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한마음으로 마스크 만들다




김은정

코로나19로 인해 세상 밖이 무서웠고 매일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관심이 쏠렸고,
마스크 부족으로 줄을 길게 서서 마스크를 사곤 했던 어느 날, 우연히 양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스크 만들어 어려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배부한다는 얘길 듣고 목4동 자율방재단 단원들과 만
들어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500개를 만들겠다고 신청을 했다.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어서 불안했지만 한마음이라는 이름으로 단원 모두가 동참을 하겠다고 하셨다.
처음에는 마스크 재료를 받은 날 500개를 우습게 봤는데 공정이 여러 단계가 요구되는 거 같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나밖에 미싱을 하는 사람이 없어 미싱 한 대로 하려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 부산에 사는 동생한테 미싱을 택배로 받아 미싱을 해본 적 없으신 문성희 단장님을 가르쳐가며
미싱질을 하였다. 양승완 단원님이 또 흔쾌히 본인사무실을 비워주셔서 퇴근하고 모두 시간되시는 단
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서서 각자 일을 분담하여 척척 해나가게 되었다.
하나하나 완성한 마스크가 나올 때마다 기뻐 모두들 박수를 치고 좋아했다.
일주일이란 시간 동안 시간될 때마다 모두 한마음으로 모여 작업을 하다 보니 좀더 단원들과 친분이
쌓이고 또 사무실에 놀러 오셨다가 도와 주셨던 분이 많이 계신데 몰랐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밥도 같
이 먹고 차도 같이 먹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고
마지막 날은 밤을 새워 도란도란 얘기하며 500개를 완성했을 때 그 기분은 정말 기뻐다.
걱정했던 거와는 달리 너무 단원들이 일사천리로 잘해주셔서 미리 전달할 수 있어 넘 좋았고
이 마스크를 쓰실 어르신들과 어린이를 생각하니 가슴 뿌듯하였고
요즘 길에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걸 보니 나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기뻐다.
이 마스크를 만들면서 새로운 분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코로나19를 잠시 잊고 집중하게 되었던 거 같아
서 행복한 날들이었던 거 같다. 이 행복감을 잊지 않으려고 오늘도 어떤 봉사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다. 함께한 목4동자율방재단 단원님들 모두 파이팅!!!!



네? 퍼레이드에 아이들을 참여시키자고요? 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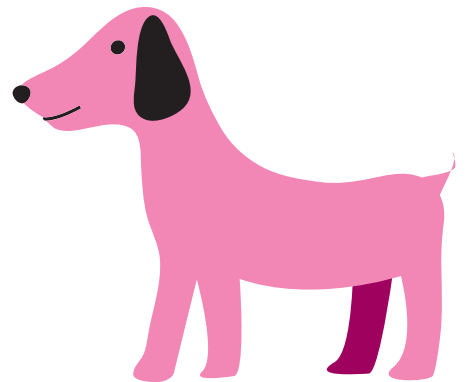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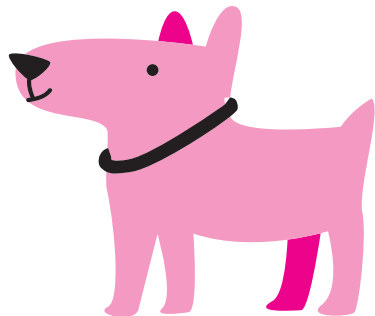


양혜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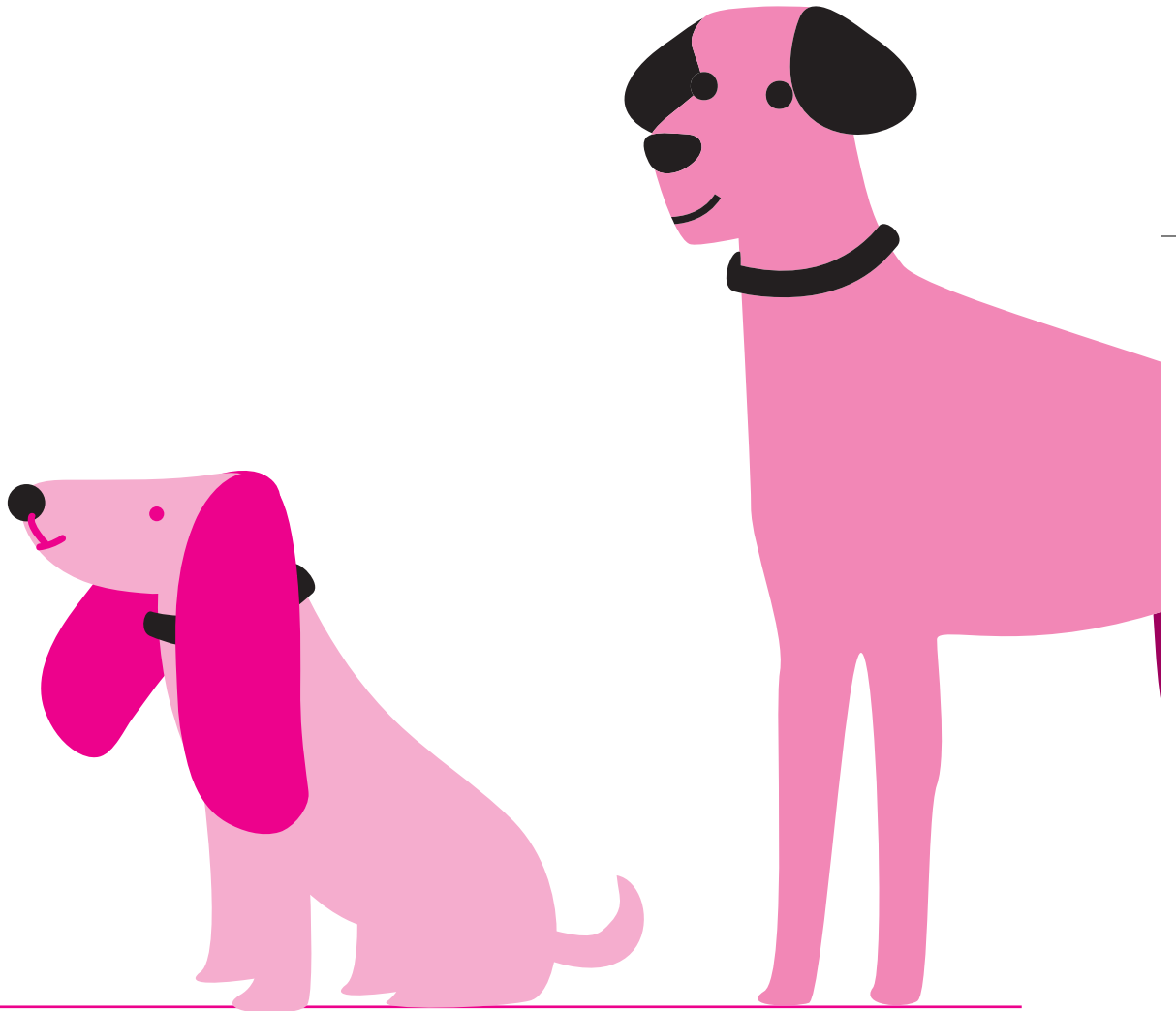
센터장님의 말이 되는 제안을 듣고, 즉 코로나19로 지친 양천구민들에게 요 귀여운 아이들이 힘내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면, 효과가 2~3배는 되지 않겠느냐는, 일리 있는 말에 넘어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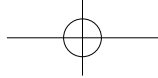
일단은, 달똥!(달려라 똥강아지) 식구들을 설득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띄고 설득 작업에 들어간 나! 하하하!

역시 우리 달똥!님들~ 흔쾌히 퍼레이드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의상 점검까지 모두 끝내고, 돌발 상황이 발생되었다. XXL 사이즈의 ‘콩’이가 출연을 못하게 된 것이다. 콩이 언니가 갈비뼈에 금이 가서 걷는 게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다. 다른 아이들이면 엄마가 안 가도 친한 이모들이니 따라갈 테지만, 콩이는 엄마 외에는 꿈쩍도 안 하는 아이였고 하루 전날 땀띠가 심외를 해야 되는 나는 머리가 아팠다. 다행히도 평상시 이모들을 잘 따르는 ‘우유’가 섭외가 되었고, 의상 사이즈가 문제였지만, ‘함식’이랑 한 사이즈씩 크게 입혀서 퍼레이드하는 걸로 마무리지었다. 행사 당일 날! 아이들 등위에 한 자씩! 힘내라 양천이라고 쓰여진 순서대로 행진을 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시작과 동시에, 개판이 되고 말았다. 등에 붙여진 글자대로는 무슨, 응가하시고, 냄새 맡으시고, 예상했던 모습이었으나, 구민들의 반응은 너무 좋았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에, 짙은 오렌지 의상을 맞춰 입고 걸어가는 모습으로도 인기 짱이었다. 마지막 관문인 파리공원 입성을 두고 다시 정렬을 하고, 공원 안으로 씩씩하게 들어서는 똥 강아지들! 더운 날씨에 자식 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흔쾌히 참여해줘서 고맙고, 코로나19에 우울한 나날과 답답한 일상을 보내던 구민들에게 즐겁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웃음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어서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마스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행사에도 참여했고, '위 켄 두' 마지막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너무 뿌듯하고 즐거웠다. 마을공동체 '달똥!'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이들과 웃음 바이러스를 전파하며, 퍼져나갈 것이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든다



최서은

코로나19, 모든 것이 멈추는 것 같았던 몇 개월.

처음엔 한두 달이면 사라질 줄 알았지만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장기전으로 갈 모양이다.

막연히 지난 일상 생활을 그리워만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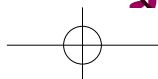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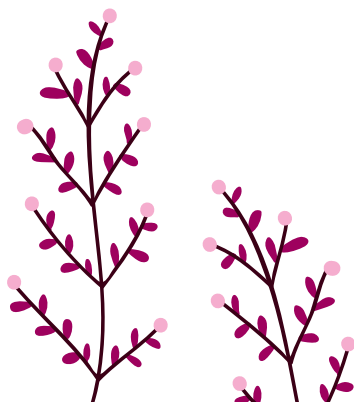
하지만 모임이나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니 가족끼리 같이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가족 중심의 생활이 되어 꼭 나쁜 것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잃어버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 손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소중한 놀이들을 되찾아주고 싶었다.

산에 데리고 가 개구리알, 도롱뇽알을 찾아보고 시골에서 상추, 파, 고추심기 등 농사체험도 했다.

얼마 전엔 남편이 파리공원에서 나비체험을 주관하였다.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과정을 배우고, 마스크 쓰고 손에 잡자리체를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형, 동생들, 엄마, 아빠와 함께 같이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며 이 힘든 시기에도 멈추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공유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놀이 방법을 알려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놀이문화를 되찾아주고자 한다.





목4동 우리 마을



이현진

내가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림 안에서는 많은 세계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세계들은 아름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잔잔하기도 하다.
때로는 거친 세계들을 통해 나를 발견하기도 하고 화려한 색을 통해 나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림 덕분에 나는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는...우리의, 마음까지도 관심 있게 보게 되었고
그 시간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흘러가고 있다. 더 많은 세계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중요
한 공유가치로서의 그림은 엄청난 힘을 가진다.
생활미술로서 함께하고 같이 웃고 치유하며 꽃 같은 나날을 보내왔지만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가 우
리에게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은 망가졌고 학교와 학원수업은 온라인화되고 모임은 할 수 없게 되었다.
전 세계가 우울해졌고 절망적이었고 힘들었고 막막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그건 바로!! 몇 년 동안 이 마을 속에서 흘러온 우리들의 시간이었다.
혼자가 아니었고 함께했으며
같이 울고 웃으며 풀어내었던
그 많았던 '행복연구시간' 말이다.
불안하지 않다면 거짓말일지도 모르나, 우리는 그동안 단단해져 있었다는 것만은 확실했고, 그 마음만
은 함께할 수 있었다.
당연한 줄 알고 흘러갔던 시간들이 이 코로나사태를 통해
더 절실했고, 일상이 그리웠고 서로가 고마웠다.
사람은 결국 사람 속에서 자란다.

공동체의 중요성과 사람의 귀중함을 마음속 깊이 나누고 있는 지금의 우리 마을은 그림 잔치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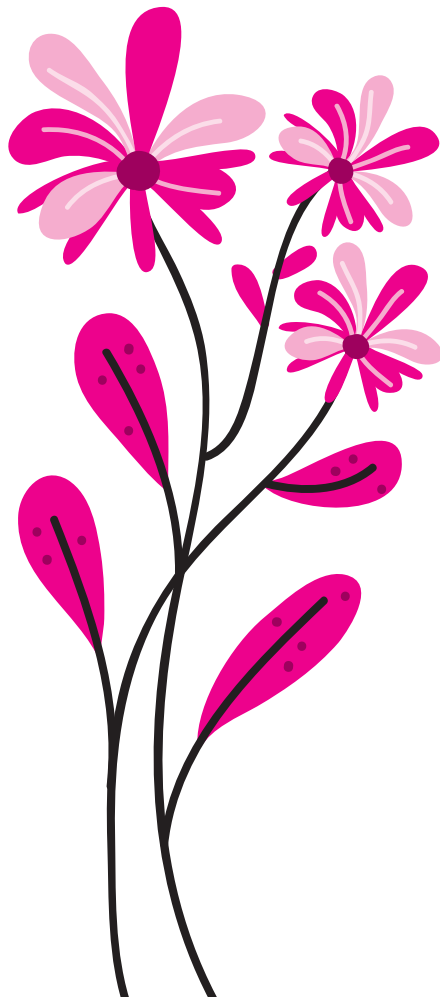
많은 인원이 만나거나 모여 있지는 못해도 안전한 물리적 거리유지를 지키며 ‘따로 또 같이’ 가족과 함께 마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목4동 우리 마을 그림 잔치’는 6~7월에 거쳐 마을그림을 완성하고 8월부터 한 달 동안 100여 점의 결과물을 동네 놀이터에 전시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감상하고 나누는 안전한 외부전시를 통해 우리는 또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 목4동 마을은 행복의 공기를 같이 느끼며, 씩씩하고 즐겁게 잘 살아가고 있다.

매일 한 뼘씩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면 그 어느 때보다 훨씬~ 그리고 엄청나게 성장해 있을 것이다.^^





코로나로 다시 서는 나



임은아

나는 아들 셋을 키우는 엄마이자, 프리랜서 강사이다.

일이 없다. 아니 일은 많은데(정확히 말하면 집안일), 돈이 안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나는 무한 백수가 되었다.

아이들은 집에서 기나긴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었다. 너무 바쁘게 살아왔던 터라 한편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너무나 정당하게 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일하느라 소홀했던 아이들에게 나름 점수를 만회하고자 맛난 음식을 매일같이 대령했다.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늘어만 가는 방학에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다. 식탁에 오르는 메뉴는 점점 더 간소화되어가고 있었고, 집은 점점 지저분해져 가고 있었다.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이 되자 나는 의기소침해지며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져만 갔다. 핸드폰으로 갖가지 정보며 TV를 시청했다. 그러던 중 스타강사 김미경 씨의 동영상 하나 보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을 때! 지금 뭔가 해야 할 때!”라는 말이 내 뇌리에 박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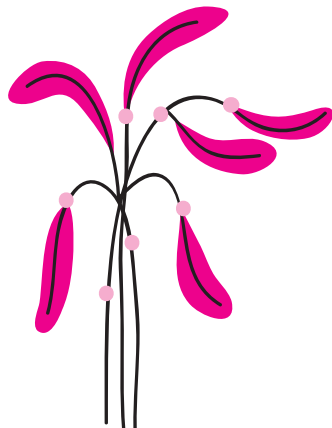
그렇다. 지금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엔 내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내가 뭘 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할 일이 생각이 났다. 그동안 관심이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시도해보지 못했던 인형을 만들어보기로 하고, 아들과 같이 인형극을 해보기로 하였다. 이야기를 선정하고, 어떻게 만들까 구상도 하였다. 유튜브로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것을 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미흡하나마 인형이 완성되고, 미니 인형극 틀을 만들고 우리 집만의 작은 무대를 만들어 동영상을 찍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잘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만들면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아이들과의 대화도 폭이 넓어지는 것을 느꼈다. 웬지 자신감이 생겼다. 겨우 보잘것없는 인형 몇 개 만들어놓고... 그러나 그것은 인형이라기보다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힘을 실어준 매개체 같은 것이었다. 얼마 전 교육공동체사업에 선정이 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

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용기를 내어 팀원에게 전화를 하고, 강사님께 전화를 드려 첫 모임이 성사되었다. 처음 모임에 많이 설레었다. 그동안 너무 당연했던 이웃과의 모임이었으나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SNS와 친해지기로 했다. 나는 기계와 친하지 않아서 잘 다룰 줄 모른다. 그래서 항상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유튜버의 도움을 받아 나의 일에 도움이 될 여러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유튜버가 되겠다기보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에 나도 합류하기 위해서이다.

거창한 계획은 아니지만, 할 수 없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이상 이 기회를 통해 한 발 나아가는 내가 되기로 했다.

어찌 보면 코로나는 우리가 함부로 사용한 자연에 대해, 자연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움직임에 제한을 한 때에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면서 대기가 맑아져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다. 4차산업혁명 이후 우리의 삶의 질은 좋아졌을지 모르나 우리의 지구는 점점 병들고 아파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우리가 잘 만들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 계획하고 실천하려는 우리 모임은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동화로 만들고, 인형을 제작하여 그 인형으로 인형극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나눌 것이다. 비록 그것이 미미할 수는 있지만, 함께하는 이웃이 있어 행복하고, 나눌 수 있어 행복하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희망적일 것을 나는 믿는다.





나에게 다가온 코로나의 생활



김호순

전 국민이 힘들게 이겨내고 있는 코로나가 나에게도 힘들게 스며들고 있다. 살아오면서 너무 힘들었던 생활 중 하나가 두 남자아이를 낳고 신랑과 맞벌이를 하면서 매일 전쟁터 같은 하루를 보내는 것이었다. 그런 나의 생활이 싫어 회사를 그만두고 제2의 인생을 살겠다는, 아이에게도 행복을 주고 나에게도 행복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만 일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 좋았던 나의 생활이 코로나가 다가오면서 그때의 생활로 돌아간 것 같아서 요즘은 행복을 느끼지도 못한 채 하루를 마무리한다.

물론 신랑도 삼천포라는 먼 곳의 일터에서 코로나를 힘겹게 이겨내며 가족과 떨어져 자주 오지도 못하고 가족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요즘 나의 독박육아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앞에 말한 것과 같이 매일이 전쟁터다.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를 끝내고 큰아이를 깨워서 온라인 학습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둘째를 힘겹게 깨워 EBS 방송을 틀어준 후 아침을 준비하는 게 나의 아침의 시작이며, 그 후는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지 체크해주는 선생님이 잠시 되어주는 놀이도 해야 한다.

다른 엄마들도 공감을 할 거라 생각한다. ‘때로는 착한 엄마로 아이들을 토닥이고 또 때로는 악마가 된 엄마로 아이들을 혼내고 있고 아마도 후자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 말은 즉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래도 일을 하지 않는 날은 조금 수월한데 일을 하러 가는 날은 큰 아이도 아직 어린데 둘째를 항상 큰 아이가 돌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럴 때는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내 마음마저도 조금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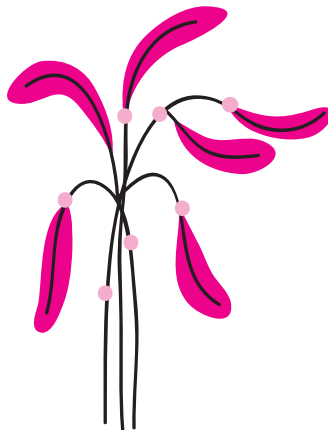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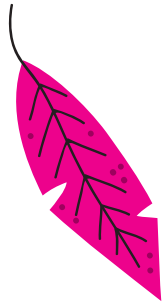
일을 하는 날은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밤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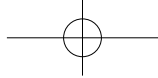
가끔 주변에 맞벌이 부부들을 보면 난 일주일에 한두 번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들은 얼마나 힘들게 이겨내고 있는지가 느껴진다.

그것을 위안 삼아 가끔씩은 그래도 덜 힘든 것이라고 내 자신을 위로해보기도 한다.

너무 힘든 시기를 만나서 모두가 힘들지만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해보니 이제는 코로나를 즐겨야 할 때가 오고 있는 듯하다.

아주 작은 행복이지만 엄마가 오늘 하루 힘들어 보이면 우리 아이들은 잠자리에서 엄마에게 안마쿠션을 쓸 것을 권유하며 고사리손으로 시원하게 안마를 해주는 나의 일상에 잠시나마 코로나를 즐겨본다.





우리는 희망 나누미



김영원

“선생님~ 에탄올은 어디에 부을까요?”

“분담해서 단순 작업이 좋을 거 같아요.”

“놀이 말고 빨리빨리 해요~”

“이거 몇 개나 만들어야 해요? 개수가 부족하진 않으려나?”

“뚜껑 닫으면서 손가락이 부르텠어요. 나 곱게 자란 사람이야~”

“아하하하~ 이상한 농담을 그렇게 진지하게 하면 안 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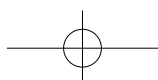
“이러다 개그동아리로 소문나겠어요. 아하하하~”

한바탕 왁자지껄 웃으면서 일하는 이 소리는 어디서 들리는 소리일까요? 바로바로~~~ 양천구 마을공동체 우리마을지원사업에서 열심히 재밌게 놀자고 사업을 시작한 ‘신월시영아파트’ 사람들의 공장 들리는(?) 소리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특수부대 못지않은 우리 마을 사람들은 고민을 한순간에 잠재워줬어요. 우리가 처음에 나누려고 했던 것을 생각해보고, 지금 필요한 것을 주변에 나누자고 시작된 첫 번째 일은 손 소독제 만들기였어요. 작지만 꼭 필요한 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우리 모임 사람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늘 집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복지관 사람들을 위해 알록달록 예쁜 수세미와 손 소독제를 선물로 들고 방문하도록 하고, 아파트에서 얼굴 보며 인사하는 우리 이웃들에게는 손 소독제와 모기 기피제를 나눠주면서 우리는 늘 활짝 웃어줍니다. 마스크에 가려져 입은 보이지 않지만 활짝 웃어 작아진 눈과 밝은 목소리는 이웃들에게 힘을 주지요.



사업 기간의 절반이 되도록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만, 어두운 곳에서 작은 반딧불이 켜져 커다란 희망이 되듯 우리 마을 사람들의 희망을 향한 마음이 더해져 코로나도 잘




이겨낼 거라 믿고 있습니다.

언제나 밝게 웃으며 잔소리하는 우리 신월시영아파트, 우리는 진정한 희망 도우미랍니다. 다음 모임은 또 무엇을 하면서 활짝 웃을까요? 우리의 웃음은 또 얼마나 희망을 더 커지게 할까요? 정말정말 기대 되네요~ 늘 불평 하나 없이 웃어주는 우리 모임 사람들~~~ 고맙고 사랑해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의 이야기



박보경

2020년은 평생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거 같다.

메르스도 사스도 겪어봤지만 이렇게까지 생활에 밀접한 공포스러운 질환은 처음 겪는 거 같다.

사회 활동을 줄이게 되어 친구 친척들은 만날 수 없었지만 원가족들과의 만남은 더 잦고 깊어졌다. 갈등도 생겼지만 더 많이 대화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할머니 할아버지는 코로나 사태에도 웃음이 떠나질 않으셨다. 외식을 못 해도 괜찮았다.

밖에 나가는 대신 집에서 더 많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공포로 언제까지나 방 안에만 있을 수는 없었다. 특히나 7살 3살 아들들은 집안에 있는 것이 고문이다.

야외 활동에 비교적 안전한 질환이라는 판단 하에 인적이 드문 야외로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다. 산책을 나가는 길에 놀이터를 보니 아이들이 없었다.

그래서 놀이터를 점령하기 시작했다.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다시 집으로 와서 실내 놀이 하고 점심 먹고 또 다시 놀이터로 나가 신나게 놀았다.

우리가 놀이터에서 노는 걸 보고 지나가던 친구들이 하나 둘 씩 놀다 가고는 했다.

우리는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모래놀이 용품을 갈아두면 친구들이 와서 알아서 하나씩 점령하고

각자의 세계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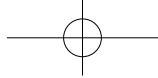
친구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그러다 감사하게도 양천구 마을공동체 생생마을터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아이들과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놀잇감을 마련하고 간식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 때문에 물놀이하러 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들통에 물을 담아 물총놀이를 하고 간이 풀장을 마련해 물놀이를 했다.

“누군가의 수고로 인해 우리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힘을 받아 우리는 행복한 놀이터를 만들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멀리 가는 것도 많은 사람이 만나는 것도 심지어는 다중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불안하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이 시기를 살아가는 것이 괴로운 일이 아니며 조금 주의해서 즐겁게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소중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올 거라 믿고 있다.





언젠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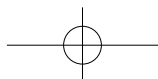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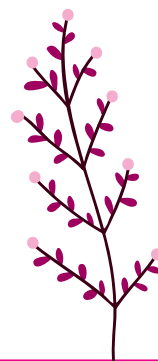
박윤정


푸른 하늘을 얻었지만 마스크도 같이 얻었어요.

푸른 하늘만큼 맑아진 공기를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느끼고 싶어요.

언젠가는 벗는 날이 오겠지만 과연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두가 힘들지만 꼭 다시 예전 모습을 되찾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당연한 것들



문선영

당연하게 만났던 만남도...
당연하게 다녔던 여행도...
당연하게 만나지도 가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마땅한 것들의 귀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만나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떠납니다.

조금만 힘내봅시다.
조금만 견뎌봅시다.





타국에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에게



임재현

친구야, 잘 지내고 있는지?

요즘 미국도 코로나 환자 발생이 진정되지 않고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어서 불안한 상황이라고 듣고 있는데 잘 견디고 있는지 걱정되는구나. 지난번 통화했을 때는 마스크 부족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했지. 아직도 마스크 구입하기가 쉽지 않아 일회용 마스크를 매번 쓰고 다닐 수가 없어 천마스크를 2장 겹쳐서 양 가장자리를 고정시키고 사이에 커피 필터를 끼워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지. 한국이 미국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은 상황인데도 너는 오히려 나를 더 걱정하면서 천마스크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우울한 시기에 웃음 잃지 말라고 재미있는 동영상도 보내주고.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범죄자로 오인받기가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꺼려 해서 확산이 더 빠른 것 같다고 그랬지. 그래서 요즘에도 밖에 나가기가 불안하고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도 걱정된다고. 설상가상으로 지난번에는 흑인의 죽음으로 시위가 격해져서 신변의 위협까지 느껴야 하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져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던 네 목소리가 아직도 마음을 찡하게 하는구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힘을 잃지 않고 밝은 목소리로 나를

격려해주던 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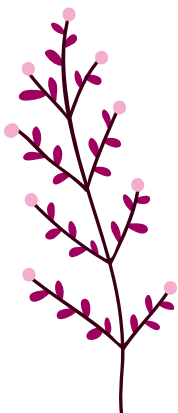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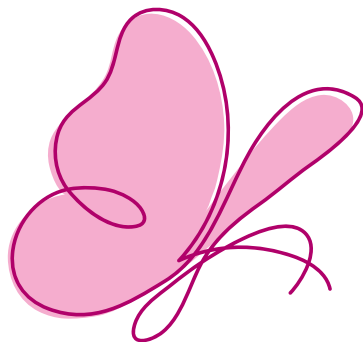
나 역시 요즘 밖을 돌아다니는 것도 불안하고 활동 범위가 많이 좁아져서 갑갑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너와 대화를 나누며 긍정적이고 쾌활한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시름을 잊게 되고 마음이 다시 밝아진단다.



자주 만날 수 없는 너이기에 올해는 모처럼 시간을 내서 너를 만나러 갈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무산되고 말아 너무 안타깝다.

친구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나기도 쉽지 않고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언제 만나러 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도 없지만 마음만은 항상 가까이 있다는 것 잊지 않기를...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면 머지않아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평소에는 당연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이 시기에 우리의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파이팅을 외치자꾸나!





단 하나의 여성생협 행복중심생협 즐거웁게 코로나19 마을공동체와 함께해요.



행복중심서울서남생협

2020년은 행복중심서울서남생협 이사장으로 임기 1년을 남기고 있어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낼 거라고 희망에 부푼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매년 찾아오던 감기처럼 쉽게 생각한 코로나19는 우리 걸을 떠나지 못하고 속절없이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가 길어지면서 빨리 지나가길 간절할 마음으로 빌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도 현명하게 대처하며 이겨냈고, 우리 마을 양천지역 곳곳 찾아다니시며 방역하시는 임들을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아주 작은 마음으로 사과즙, 양파즙을 나눔에 동참하면서 또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차에 매일매일 뉴스에 마스크 부족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장소마다에는 몇시간씩 기다리며 마스크 사려는 줄이 구비구비 돌아서, 끝이 안 보이게 서서 고생하며 구입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다가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어르신에게 나눔 마스크 만들기 한다가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신청하게 되었다.

행복중심서울서남생협에는 여성민우회 시절부터 함께해온 오래된 10여 년 넘게 이어온 자랑스런 선배 모임이 있다.

단체톡 방에 마스크 만들기 함께하자는 소식에 노안으로 고생하는 초창기 선배님들은 한달음에 엄마 유품인 재봉틀을 들고 찾아와 동참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다며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다.

선배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코로나19 시작부터 양천구, 강서구 선별진료소에서 구민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많은 선생님들에게 작은 정성을 모아 모아서 간식 나눔을 하였다.

행복중심서울서남생협은 여성들이 만든 작은 생협이지만 어려운 작은 가게, 지역살림에 함께하고자 착한선결제, 지역사랑상품권 등 조합원에게 널리널리 알리고 어려움을 즐거웁게 함께 나누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힘내라! 양천구 마을공동체 힘내라! 행복중심서울서남생협 아자! 아자! 힘내자!



마스크와 코로나 그리고 나라 구한 아내



이권웅

문득 다리가 네 개 달린 여달이식 TV가 생각났다. 못난이 삼형제의 인형이 늘 지키고 있던 마치 ‘가구’ 같았던 TV 말이다.

전염병이 창궐하고부터는 집에서 TV를 보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 구입하는 날부터 낡아 보였던 TV 위의 못난이 3형제처럼 방 한복판을 차지하고 붙박이가 되어버린 갑작스러운 삶.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란 탓에 까만 피부가 늘 자랑 아닌 자랑이었지만 단조로운 생활로 눈에 띄게 하얘지는 게 옷프게 느껴질 때쯤, 두 아이의 양육과 교육, 뒤통자거리에 늘 지쳐 있던 아내가 뭘 하는지 많이 바쁘다고 했다. 물어봐도 딱히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피곤해서 그랬던 것 같다. 실은 나도 피곤하니 뭐 대답은 듣지 않아도 불만은 없었지만 아내의 얼굴은 힘든 기색이 역력했다.

어느 날은 꼬치꼬치 캐물어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아내로부터 듣게 되었다. 마스크라... 코로나19 탓에 거리고 카페고 식당,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마스크를 썼다. 비싸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싸지 않은 않고 심지어 불편하기 그지없는 마스크를 썼다.

아내는 마스크를 만든다고 그랬다.

“그게 돈이 되는 일이야?”

내가 아내에게 했던 말이다. 돈도 안 되는 일에 매달려서 힘들게 왜 저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마스크를 제작해서 나눔을 하는 일이었고, 아내는 그 일을 하느라 그리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힘내라 양천’이라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이외에도 재능 기부 차원에서 나는 평생 해보지 못했던 이른바 ‘자원봉사’를 해왔던 것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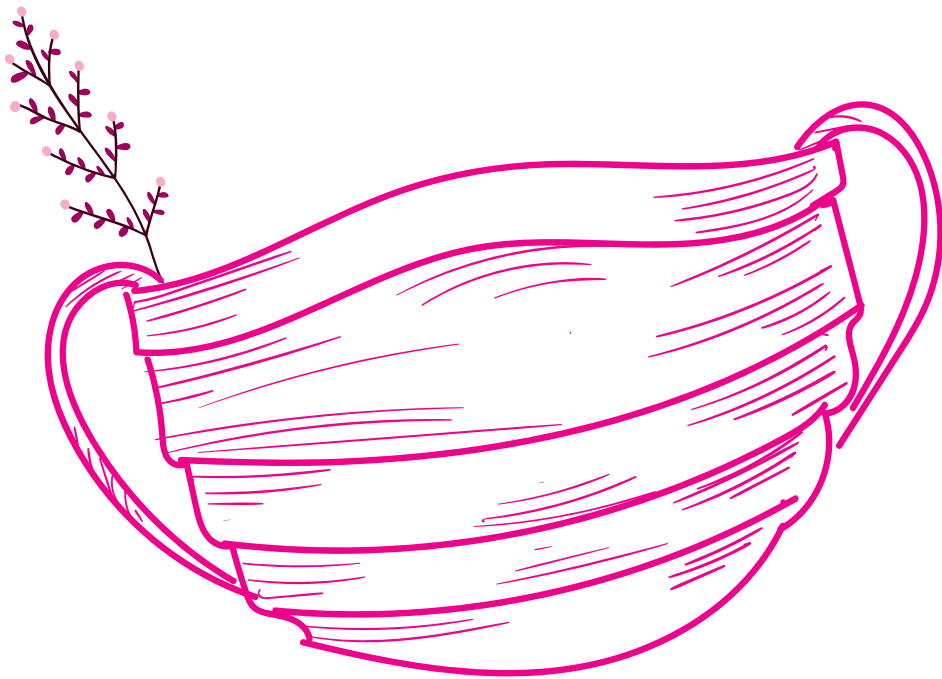
‘이야, 우리 마누라 진짜로 나라를 구하러 다녔던 거구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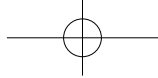
지금은 나도 아내가 만든 ‘천으로 만든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답답한 느낌이 들 때면 힘들게 만든 아내를 생각하며 마스크를 고쳐 쓰곤 한다.

대단한 일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내게는 자랑스러운 일이다.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힘들지만 한 걸음 더 디디는 그 열정과 용기에...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힘의 원천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뿌듯해지는 기분마저 든다. 나도 더불어 산다는 생각으로 살아야겠다는 얼마 가지 않을 다짐도 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된 요즘 나는 눈에 띄게 까매지고 있다.





이상적인 일상



이혜경

출근 전 우유와 미숫가루를 냉장고에서 꺼낸다.

공방에서 만난 분들이 나눔 해주신 우유와 미숫가루로 든든하고 따스한 아침을 시작한다.

오늘은 안과 정기 검진을 하러 간다.

일부러 공방에 가는 날을 피해서 잡았다.

혼자 그리는 것보다 같이 그리면 그림이 풍성해진다. 그리는 과정에서도 나만 나의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이웃들의 관심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공방이 여는 날에 맞추어 이웃들과 같이 그리려고 스케줄을 조정한다.

출근해서 보니 간식 서랍엔 공방 선생님이 나누어준 간식이 가득하다. 이따 학원 아이들 나눠주면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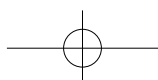
내일은 공방 사람들과 한 달에 한 번 좋은 데 가서 밥 먹기로 한 약속이 있다. 전날 밤에 일찍 나갈 준비를 하고 자야지.

주말에도 단톡창에는 다들 나눔 할 물건과 음식을 올리고 각자의 가족과 보내는 가족과의 일상을 계속 공유한다.

동네 새로 생긴 맛집을 공유하고 주문 노하우도 알려준다.

또 동네 그리기를 하는 모임 전시를 위해 찍은 사진들도 공유하고 자신이 그린 그림도 함께 본다.

이웃들은 그림을 그린 시간과 노력을 칭찬하고 내가 보지 못한 이웃이 찾아낸 동네의 아름다움을 감탄한다.



이런 일상이 언제부터인 걸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요일이 이웃들과 연결된 생활이 언제부터였을까?

아마도 코로나 사태 이후일 것이다.

이 동네에 10년을 살았지만 그렇다 할 동네에 애정이 없었다. 그저 내 가족과 나만 사는 집에 애정이 있을 뿐, 동네에는 관심도 없고 이웃이라 할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멀리 갈 수도 없고 먼 곳의 사람들도 만나기 힘들어졌다.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가까운 공방에 잠시 가서 그림이라도 그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나에게 공방은 그저 그림을 배우고 내 그림을 그리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의 공방은 늘 칭찬의 말, 대가를 바라지 않는 미소, 늘 서로에게 못 줘서 난리인 나눔으로 가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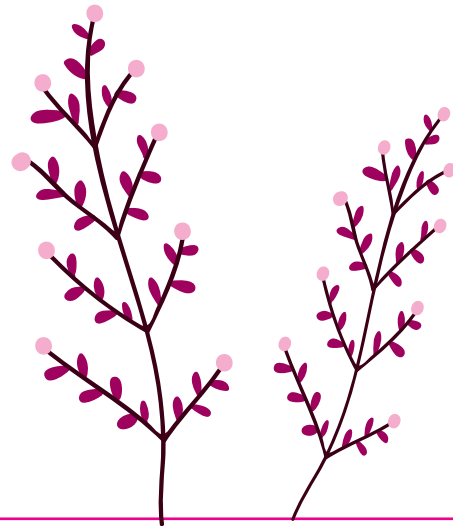
그곳에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다.

나의 또래여도 또래가 아니어도 우리는 근처에 살고 모두 그림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림이 좋아서 갔는데, 어쩌면 내가 사람을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코로나 사태 초반, 불안과 스트레스가 많아 힘들었다. 하지만 돌아보니 이웃들과 그들의 관심과 미소, 따스함으로 그 시간을 지나온 것 같다.

코로나는 나의 일상을 바꾸었다. 어떤 식으로든.





안전한 교류



최혜임

다행히 비가 내리지 않고 햇볕이 내리쬐는 6월 어느 날, 양천구 마을공동체 ‘한마음놀이마당’ 팀은 오전부터 분주했습니다.

“판넬! 대형 주사위! 배너! 다 챙겼어요.”

“손 소독제도 챙겼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모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챙기는 것이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되었고, 이날은 일회용 비닐장갑도 준비했습니다.

행사 한 달 전, 마을의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실내를 기피하고 모여 있는 것이 두려운 분위기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열린마을강좌와 양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위 캔 두’ 행사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바로 야외에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로는, 떨어져서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사회 분위기에 맞춰 안전하게 교류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자고 마음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 참여하든 기쁘고 즐거움으로 면역력이 길러지도록 해봐요.”

모임에서 한 말에 다들 한바탕 웃었지만, 준비하는 우리도 즐거웠기에 이 즐거움이 행사 당일 전달될 거 같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바라보니 우리의 표정이 어두워 보여 옷도 밝은 색을 입고 귀여운 머리띠도 준비했습니다. 행사 당일 비가 온다고 한 기상청 예보는 하루 전날 ‘햇볕 짹짹’으로 바뀌고, 산책로에 여러 마을 주민분들이 와서 ‘한국문화퀴즈’도 풀고 대형 주사위도 던지며 그들의 마스크 밖으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우리 마을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가진 ‘한마음놀이마당’ 모임에서는 이렇게 안전하게 교류하고 즐거움을 얻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준비하자고 마음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하기에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친구도 못 알아볼 줄이야



이호중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마스크를 써본 적은 별로 없었다. 마스크는 심한 감기에 걸렸거나, 추운 날 방한용으로 보통 사용하는데, 감기도 별로 걸려본 일이 없고, 춥다고 얼굴까지 가리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코로나19가 만연되면서 전 국민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돼서야 나도 조심해야겠고, 남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산다. 마스크를 끼고 살다 보니 참 재미있는 일도 생긴다.

지난 5월 25일부터 4일간 서울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에서 마을기록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을 때다. 이날도 교육생 모두 마스크를 끼고 실내에서 교육을 받았다. 교육에는 모두 8개 자치구에서 선발된 30명이 참석했는데, 나는 양천구 소속으로 참가했다.

그런데, 양천구 바로 옆자리에서 광진구에 소속된 분들이 함께 교육을 받았다. 우리는 마스크 넘어 얼굴도 잘 모르는 채 교육 관련 이야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도 마스크를 낀 상태로 얘기도 하는 등, 마스크만 썼지 일상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마스크를 잠깐 벗을 일이 있었는데, 마침 광진구 소속의 한 교육생도 마스크를 살짝 들추며 다시 착용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때 찰나처럼 스쳐가는 그 사람의 얼굴이 보였고, 아뿔싸 그 사람은 바로 오랫동안 소식을 모르고 지냈던 옛 친구였던 것이었다. 아무리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그렇지, 그리고, 바로 옆자리에서 이틀이나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못 알아보겠다는 사실에 우리는 웃음만 나왔다. 교육을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에야 서로 알아볼 수 있었으니 이럴 때는 누구의 책임인가? 마스크를 끼고 다니지 않을 때는 길에서 우연히 아는 사람도 만났는데, 마스크를 끼고 다니다 보면 그 우연도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조금 걱정도 된다.

혹시라도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닌지, 조금 전에 아는 사람 그냥 모르고 지나친 것은 아닌지, 비슷한 사람을 길에서 스치면, 이제는 그 사람 마스크 안에 가려진 진짜 모습까지 궁금해진다. 그렇다고 물어볼 수도 없고.



마음 백신



박경미

나는 80~90대 할머니들이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활동가이다. 2월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은 오전의 일과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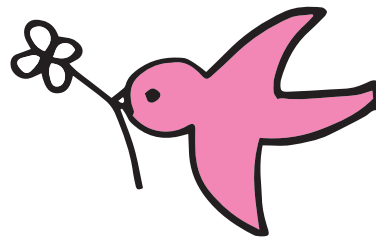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지역 발생은 몇 명인지, 해외 유입은 몇 명인지, 서울은 얼마나 늘었는지, 또 양천구는 확진자가 없는지 검색하는 일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화 걸기와 받기만 할 수 있는 80~90대 할머니들은 마을의 세세한 정보까지 알기는 어렵다. 심지어 확진자가 ○○에서 발행했다는 재난문자가 와도 문자 확인을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는 일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일도 약국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들러서 물어봐야 한다. 대면접촉을 피해야 하는 고위험 취약계층이지만, 대부분의 정보를 대면을 통해 얻는다. 그래서 요즘처럼 비대면, 언택트를 중요하게 여기는 코로나 시대에는 정보에 따른 격차와 소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나는 그 간극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할머니들에게 열심히 전화를 한다.

할머니들은 6.25 전쟁 때도 이렇게 사람을 못 만나지는 않았다고 바이러스가 더 지독하다고들 한다. 바이러스는 전쟁 때도 가능했던 당연한 일들, 즉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모임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그래도 전화가 있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게 대답하신다.

신월3동의 확진자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고, 6개월 만에 뜨개 모임을 했다. 예전처럼 전체가 모이지 않고, 소모임으로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로 진행했지만, 어느 때보다 열심히 마음을 모아 뜨개를 뜬다. 이렇게 모여 뜨개라도 하니 살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코로나 이전에는 몰랐던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졌다. 손과 손이 전하는 온기가 무척 그리워지며,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함께라서 견뎌낼 수 있겠다는 희망도 보인다. 할머니들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본인들이 고위험군이라 코로나에 걸릴까 겁나서가 아니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를 전파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 봐였다. 특히 젊은 사람이 걸리면 안 된다고 나와 나의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져 뭉클해졌다. 세대를 뛰어넘어,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코로나를 예방하는 백신이 아닐까 한다. 그러한 마음 백신을 장착하고(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손 씻기는 기본)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멈춰진 시간이 아니라 ‘함께’라는 소중함을 일깨워준 시간으로 남을 거라 기대해본다.





코로나 극복

정용숙





2020년 중간 신록의 푸르름이 질어가는 여름, 하루하루가 다르게 계절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시느라 많이들 힘드시죠. 꽃피는 삼월에도 꽃구경 못하고 방에서 방콕. 입가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는 요즈음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양천구에선 꺾일 줄 모르고 오늘도 신월동, 목동, 양천구 탁구장에서 재확산으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마음엔 온통 코로나 19 코로나19. 겨울의 끝자락 2월 어느 날, 중국 우한시에서 바이러스 발생. 뉴스에서 길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 조금 있으니 세계뉴스에서 우한시 바이러스가 ‘코로나19’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특히 이탈리아에선 하루에 500명 죽어간다고 장례식장엔 줄로 이어져 있다고 뉴스에 나오고. 모든 국민이 무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구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극점을 보이며 매일매일 확진자가 500명, 1,000명 놀라게 늘어갔죠. 사망자도 연일 높아가고 그 가운데 완쾌한 사람도 많이 나왔죠.


그런데, 신천지 교회 신자들이 전국을 다니며 코로나가 연일 계속 늘어났지요. 우리나라에선 대통령님과 국무총리, 재난안전대책위원회에서 수고하시고 의료진, 간호사 총동원해서 수고하신 덕분에~~~ 지금은 거의 코로나가 더 이상 발생이 줄어들더니만... 서울 이태원클럽에서 확산, 구로, 김포, 영등포, 강서구, 동작구, 양천구 등 경로조차 모르는 감염으로 확진자가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겨울방학을 끝내고 학교 개학하는 날만 기다리던 중 개학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개학을 진행했죠. 거의 다 개학을 했지만 학교 학생이 확진자, 유치원생도 확진자 발생. 그런 가운데 공부하던 일상으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길~~~

11단지 어머님께서 아들이 캐나다 유학을 갔다 왔는데 검사 결과 음성판정이 나왔는데요. 학생은 방에서 일주일 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어머님은 아침에 출근할 때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보온통에 넣어 방에 넣어 주었다고 해요. 퇴근해서는 그릇과 옷을 매일매일 뜨거운 물에 삶고 그렇게 일주일을 하고 아들이 검사를 해서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고생보다 아들의 건강이 최고다 하는 말. 역시 어머니는 훌륭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더욱 더 좋은 시절이 돌아올 걸 기약하며, 다 같이 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두기, 손 씻기, 모임 자제 등을 철저히 지켜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회복되어 행복한 나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괜찮아요!



유효영

애들아! 빨리빨리 좀 해. 엄마 회사 늦겠어

엄마! 저 오늘 무슨 무슨 학원 가요?

여보! 나 오늘 회식이라 늦어

.

.

지금 코로나로 답답하다고요?

그동안 너무 바빴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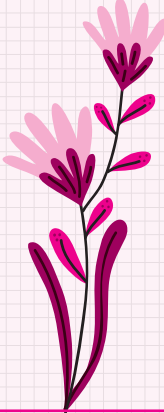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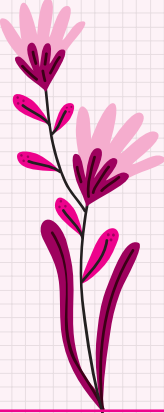
잠시 멈춰도 괜찮아요

잠시 멈추면

바빠서 신경 쓰지 못한 가족이 보이고

코로나의 끝도 보일 거예요

우리, 괜찮아요!





시름이 사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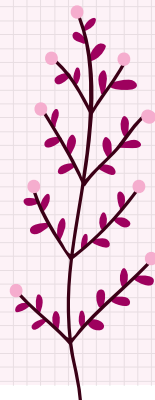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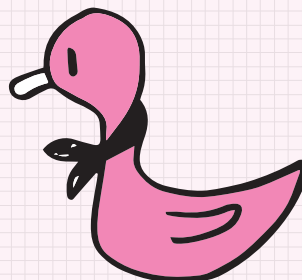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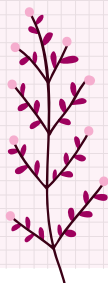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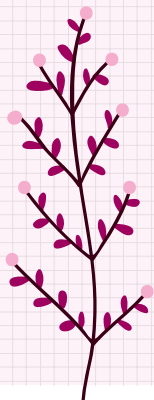
권문영



새해가 밝아오니 희망이 가득했고
가족들 둘러앉아 덕담을 나눴건만
연초부터 들려오나니 코로나가 득세한다

그렇게 지낸 시간 이미 흘러 6월이네
아이들과 나눈 시간 올해만 사천 시간
기약 없는 이 시간 안에 시름이 깊어 간다

그래도 내 아이들 내 손으로 보듬으니
자란 듯 안 자란 듯 키높이는 비슷하나
얼굴엔 엽마 사랑이 가득 들어차 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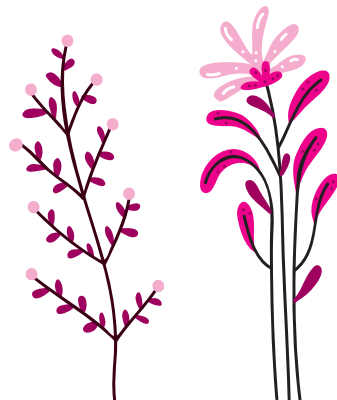


코로나



정속희

듣기만 해도 참 힘든 코로나 때문에 나의 일상이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도 다니지 못하고 그렇다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너무나도 긴 시간들이었다.
하루가 너무도 긴 시간들이고 일할 때가 참 즐거운 시간들이었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낀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까지 장애인들이 이겨내기 더 힘들다.
그러나 코로나를 이겨내자!
요즘에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웃는다.
사람은 적지만 마을공동체를 하며 사람들을 만나 즐겁다.
그리고 재미가 있다.
하루하루 살면서 퇴비도 만들어 보고, 앞으로 무슨 꽃을 심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잠시 코로나를 잊고는 한다.
우리 모두 웃음과 미소로 코로나를 이겨내자!





우리 가족 행복 캠페인



지준희

코: 코로나가 가져다준 우리 가족 행복 캠페인

로: 로또 한방처럼 모두 한방에 집콕하게 만들어버린 코로나의 힘. 동선이 부딪히면 안아주기

나: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 갖기

극: 극명하게 드러나버린 학업 수준 엄마가 체크해줄 수 있음에 감사하기, 격려하기, 칭찬하기

복: 복주머니에 편지 써서 넣어주기(한 줄 글귀, 그림도 상관없음)

공: 공평하게 주어진 힘든 이 기간 허투루 쓰지 않기, UI분석 함께 해보기

동: 동심으로 돌아가 우리 아가들의 시선으로 더 많은 시간을 켜켜이 쌓아나가기



체: 체험학습처럼 주 1회 가는 학교에도 감사하기

백: 백강스족처럼 우린 시원한 홈캉스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신: 신나게 생각하는 이 기간들이 아가들의 정서적 교감의 뿌리가 될 수 있게 감사함 불어넣어 주기

나: 나누고 힘써주시는 의료진들에게 각자의 방법으로 기부하기

눔: (움)직임이 평소보다 적지만, 건강하기!!!



코로나 덕분에...

정해란



코로나 덕분에 가족과 대화하고

코로나 덕분에 여유가 생겨

코로나 덕분에 가족들 안부를 묻고

코로나 덕분에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고

코로나 덕분에 모임의 소중함을 느끼고

코로나 덕분에 활동의 소중함을 느끼고

코로나 덕분에 돈을 아끼고



코로나 덕분에 요리 실력이 늘고

코로나 덕분에 구석구석 집 안 청소하고


코로나 덕분에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코로나 덕분에 하루를 시작할수 있어 감사하고

코로나 덕분에 오늘도 나는 감사함으로 잠든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목2동 주민자치회의 노력



목2동 주민자치회

목2동 주민자치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 자치계획을 실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동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수없이 고민하고 논의하였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문화분과는 ‘온통(通) 놀이터’를 ‘온통(집)놀이터’로 바꾸어 놀이 4종 패키지를 구성하고 동 주민들 중에 참여자를 모집해 나누어주었다. 집놀이터 패키지를 받아간 참여자들은 문화분과가 찍은 놀이동영상을 보고 집에서 노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공유해주었다. 내복을 입고 삼삼오오 집에서 노는 아이들의 천진한 모습과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윷놀이와 알까기, 보자기 제기차기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사연들이 넘쳐났다.

또한 자치회관분과는 더워지는 날씨에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는 상황에 착안하여 시원한 천으로 여름마스크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었을 뿐 아니라, 1주일 동안 9시부터 6시까지 주민센터에서 마스크 공장을 연상시킬 만큼 주민들과 함께 마스크를 만들었고, 아이들이 개학을 맞이해 슬기롭게 학교생활을 하길 응원하며 6월 2일 양화초등학교에 여름마스크 600개를 기부하였다. 그 외에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 신규 전입주민들을 위한 안내지 제작(복지돌봄분과), 불법 주차 방지를 위한 스마트 경고판 설치 및 마을의 지저분한 벽을 벽화로 장식하는 사업(주거환경분과)

등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교육분과는 용왕산숲속활력소가 리모델링을 끝내는 대로 마을 작은 음악회를 열어 용왕산을 오르내리는 많은 주민들에게 버스킹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목2동 주민자치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동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 모든 주민들이 슬기롭게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면마스크 나눔 캠페인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마을공동체 백신?!



이진영

코로나19 확산세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던 지난 4월 초 언니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혹시 러시아 항공사에 일하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다. 순간 러시아에서 유학 중인 나의 첫 조카이자, 언니 딸에 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상은 적중했다. 어려서부터 가족과 떨어져 혼자 기숙사 생활을 하며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대학생 조카가 서울로 오는 마지막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갔다가 러시아 정부의 국경 봉쇄 정책으로 출발 직전 비행편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학생들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집에 돌아가면 자퇴처리를 한다고 해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다가 상황이 심각해지자 서울로 오는 마지막 비행기 편을 어렵사리 예약하고 급하게 짐을 싸서 공항에 갔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3월부터는 수업도 진행되지 않아 기숙사 방에서 들고 갔던 비상식량 등으로 버티며 지냈다고 했다. 혼자 공항에서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는 마음이 어땠을까, 하루하루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을까, 혹시나 자기가 실수해서 마지막 비행기 편을 놓치면 어쩌나 밤새워 컴퓨터로 예약하던 순간을 이야기하는 언니의 목소리에 아직도 긴장한 기색이 가득했다. 그나마 러시아 국경 봉쇄로 발이 묶인 한국 사람들이 전세기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글을 올렸으니 청원에 참여해 달라는 말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겨 다행이었다.

서둘러 내 가족과 조카를 기억하는 친구, 가족, 지인 카톡방에 청원 참여 요청 글을 보내니 다들 청원에 참여했다는 말과 함께 조카와 나를 걱정하는 말까지 전해왔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하고자 페이스북 계정도 조카와 러시아에서 발이 묶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청원 참여 글을 올렸다. 평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을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글에 응답을 했고, 청원에 참여했다는 댓글과 자신의 계정에 다시 올려주는 공유도 해주었다. 그사이 평소에 연락이 뜸했던 몇몇 사람들에게서 전화도 왔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곳들에 조카와 같이 발이 묶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는 사람, 마침 자신의 동생이 러시아 항공사 서울사무소 직원인데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다.

3월 말 코로나19 확산세로 병원 면회조차 자유롭지 않던 시기 오랜 시간 투병을 해오시던 시아버님의 상태가 위중해져 대학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중단한 채 다시 요양병원으로 옮겨가는 등 힘들게 생을 마감하신 시아버님의 장례를 가족들끼리 어렵사리 치른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조카를 도와달라는 나의 요청에 온 힘을 다해 응답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고맙게 느껴졌다. 당연했던 것들이 멈춰진 채 일상이 무너진 상황도 어려웠지만, 내가 혹시 바이러스의 숙주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끊임없이 불안해야 하는 상황도 스트레스를 주었다. 전례 없는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모두가 겪는 각자의 고난이 이십전십으로 전해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우려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 항공사에서 화물기를 여객기로 바꿔 러시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실어오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모스크바 기숙사에 있는 조카도 좌석을 예약했다며 소식을 전하면서 청원 참여와 도움의 연락을 해온 내 주변 사람들에게 꼭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 자신이 겪는 어려움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보내온 마음에 감동했다며 자기도 앞으로 누군가가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고난이 공감과 연대의 힘으로 극복되는 경험은 공동체의 힘으로 전환되는 것 아닐까 생각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야 할 일상도 변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그때 마침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2차 면마스크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했다. 1차 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신청하지 못했는데 조카의 일을 겪고 나서는 잠을 줄여서라도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카의 일에 도움을 준 사람들의 마음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느라 끝도 없이 줄을 서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렇게 줄이라도 서서 공적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떠올랐다. 주민등록이 없어 존재하지만 자기를 증명할 수 없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무지막지한 바이러스 앞에 그나마 최소한의 자기 보호장치로 여겨지는 마스크조차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데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면 마스크 나눔 캠페인에 참여 신청을 하고 10개의 면마스크 키트를 센터에서 받아와 매일 저녁 2~3시간씩 손바느질로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손이 더디기도 했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손바느질을 같은 자세로 2~3시간을 이어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다.

연대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용산 '나눔의 집' 신부님에게 연락을 드리고 면마스크를 나눠드려도 될지 여쭙보았고 감사히 받겠다고 말씀해주셨다. 용산 '나눔의 집'에는 이주 노동자 가족과 미등록 난민 가족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데, 이분들은 공적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워 후원물품으로 받은 마스크를 전해드린 바가 있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고 특히 자녀가 많은 가정들이라 어린이용 마스크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런 상황을 센터에 말씀드렸더니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만들어주신 어린이용 마스크 60세트, 총 120개를 내가 만든 10개의 마스크와 함께 전해드리면 좋겠다고 제안해주셨다. 양천

구 주민들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든 마스크가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이주민, 난민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용산 ‘나눔의 집’에 감사한 마음이다. 코로나19로 겪는 이웃의 어려움을 같이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은 물론 이들이 연결될 수 있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존재 역시 소중하게 여겨졌다. 그동안 용산 ‘나눔의 집’이 쉽지 않은 활동을 이어온 덕분에, 양천구마을공동체센터가 면마스크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준비한 것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전시와 같은 상황을 겪으며 처음에는 불안과 공포의 감각만 극대화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사회적 재난이 주는 고난의 경험이 개인의 불행으로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의 공감과 연대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 오히려 사람들이 살아갈 힘을 얻고 더 나아가 그 공동체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맞닥뜨릴 사회적 재난을 이겨나갈 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면마스크 나눔 캠페인에 참여한 경험이 나에게서는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공동체 백신을 맞는 일과 같았다.





행복

황계진



2019년 마을공동체는 내게 의미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내 울타리는 너무도 좁고 우물 안을 나가면 큰일 날 것만 같은 마음에 나를 감싸고 살았던 긴 시간을 지나서 새로운 세계에 입문하였습니다.

태양빛이 너무 눈부셔 바로 쳐다 볼 수 없어 늘 땅바닥만 쳐다보았는데 고개를 들고 앞을 보니 행복이 있었습니다.

나는 재미없는 사람, 누가 나랑 놀까?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 재미없는 사람인데...

이 마음이 더욱 나를 놀려버리는데 “도만 아는 중창단”은 이런 나와 함께 놀자고 합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같이 날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분들에게 날개를 달아서 날아보게 하고 싶었는데 이분들에게 있는 날개를 나에게 하나씩 떼어 주어 나를 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이 노래 한 번 배워 볼까요?” 반주도 독수리 타벌과 같은 반주에 음을 맞춰 부르는데 “이거 아닌 거 같아요. 반주 다시 한 번 들어보고요.” 하는 말에 ‘땡땡땡땡’ 치는 반주를 듣고 “땡땡땡땡 땡땡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거 노래가 될까? 3파트로 하는데 6파트 소리가 나는데?

내가 뭐라고 해도 그 말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 웃어넘깁니다. 간혹 누군가가 포기하려고 한다거나 안 되겠다고 하면 원래 노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면서 틀리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발표회를 앞두고 연습을 하고 행사를 한번 두 번 치르고 나니 어느덧 무대 매너도 갖추고 중창단으로 거듭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댄스를 하나 던져 주고 안무 담당을 세우지 않아도 팀원 중에 누군가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서 하는 질서도 있고, 서로를 챙겨주는 마음을 살피주는 멋진 분들입니다.



파리공원의 양천구 마을공동체 한마당 마을축제에서 공연을 하고 나서는 무대 체질이 되어버려 뭐든지 하자고 덤벼듭니다. 놀 줄 몰랐던 나는 노는 것은 이렇게 놀면 되는구나 하고 노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만의 세계를 구축해 놓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만 상대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서툰 내게 도만 아는 중창단들은 즐거움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어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며 인생 연표를 마음으로 작성해 보면서 내가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후회와 반성이 되는 때도 있지만 도만 아는 중창단을 만나게 된 후 나의 삶은 감히 성공의 단계에 이른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멋진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나의 행복의 그래프가 높이 올라가게 해준 사람들이기에.

코로나가 상반기를 다 잡아먹고 추억이 없는 시간을 만들어 버린 요즘 도만 아는 중창단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자는데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마을 밖으로 나가서 외로운 이들을 만나서 고민을 나누고 가정도 보살피 주고자 계획을 세우고 힘찬 발걸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하는 것인데 개인주의가 되어버린 현대사회에서는 마을공동체가 주민들과 어울리는 것도 하게 해주니 발을 옮겨나가게 되고 사람인(人) 누군가를 기대거나 의지해야만 설 수 있는 것처럼 나는 혼자가 아닌 나와 함께하는 이웃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게 합니다.





제 마인드가 달라졌어요



박현주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글도 쓰고요, 사람들 앞에서 말도 하고요, 마이크 앞에 선답니다.

저는 7형제중 4남3녀 가장 끝에 막내로 세상에 나왔답니다.

어느덧 청년이 끝나고 1996년 결혼도 하고 아들과 함께 잘 살았답니다.

그러다 2001년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아들과 살게 되었습니다.

생각지 않은 일을 맞게 되면서 안 그래도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서기 싫은

사람이고 내 부족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 노래하는 거, 노는 거,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이 싫어 아무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 하거나 집을 사려 하거나 돈을 벌려고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요.

그러던 어느 날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막을 여행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행 중 길을 잃어버렸고 가지고 있던 음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죽게 된 거죠.

아들은 ‘이제 죽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아버지가 함께 있어도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가다 사막에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본 아들은 더욱더 절망이 왔습니다.

‘저 무덤을 보니 아버지와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린 살았다, 이제 살았다.”

하지만 아들은 ‘아,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정신을 잃었구나. 아, 끝이구나.’ 생각했어요.

또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저 무덤이 저렇게 있는 건 마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거야.”

하지만 아들은 전혀 반응도 없고 그냥 죽는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죠.

그런데 정말 아버지의 말대로 얼마가지 않아 마을을 만났고, 생명을 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강사님께서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가 똑같이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가 보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은 아들과 아버지의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인드입니까?”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가진 부정적 마인드, 아버지가 가진 긍정의 마인드라는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아, 나는 지금까지 아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안 되면 포기하고 늘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구나. 피하고, 숨고, 도망치고, 이렇게 살았구나 앞으로 어떤 일이(기회가) 나에게 오더라도 부정적인 마인드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이제부터라도 아버지가 가진 긍정적인 마인드(살 수 있어, 우린 살았어)로 살아야겠다.’

정말 힘든 시기에 나에게 딱 맞는 강연이었습니다.

강연을 들은 지 얼마 안 되어,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2019년 지금 중창 지도 선생님을 통해 이 단체를 소개받았고,

나중에 하려다 ‘그래, 아버지의 마인드처럼 피하지 말자. 이 모임에서 죄송합니다 할 때까지 있어 보자?’ 하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얘기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는 모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악보를 가져오시더니 ‘우리 노래 배워봅시다.’ 하셨습니다.

‘아, 그냥 배우는 거야 뭐. 그리고 우리끼리 불러보고 말겠지?’ 했는데 어느 날은 어디 가서 노래를 한대요. 그래서 또 그냥 한번 하고 말겠지 했는데 이제는 몸도(춤/울동) 쓴답니다.

일이 점점 커졌죠.

작은 카페(목동 페이퍼)에서 하고, 큰 공원(목동 파리공원)에서도 하고, 홀에서도 하고, 실버대학에서도(노래/울동)하고요. 중창과 댄스까지 합니다. 벌써 1년 넘게 함께하네요.

돌아보니 이 모임에 오지 않았으면 좋은 강연도(사막을 여행하는 아들과 아버지)

날아가 버리고 과거의 나로 돌아가 하루하루를 아무런 의미없이 시간만 보내고

살았을 겁니다(못하는 나, 안 되는 나, 그러나 나는 누구인지 모르는 나).

이 모임과 같이 하면서 싫은 적도 있고 부담스러워서 그만할까 한 적도 있지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함께하는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부담감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데서 한 번 더 힘을 갖네요.

함께하면서 이 모임에 있는 분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가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또 약간의 투덜거림, 나서는 것도 있지만

함께 땀도 흘리고 함께 긴장하고 함께 틀리고, 함께 먹고 하면서

정말 부족한 것이 문제 안 되고 약한 것도 문제 안 되고 실수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도움도(노래/춤/콩나물=악보 보는 거 등) 많이 받으면서 함께 하니 혼자 서는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네요.

이렇게 글도 쓰고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모이는 것도 어렵고 각자 생활하는 데 더 바쁘고 여유가 없는 것 같아 힘이 들지만 항상 사는 데 힘은 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어떤 때는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고 어떤 때는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도 모임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한 시간이 되면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언제 나에게 또 힘들다, 어렵다, 나는 안 되라는 부정적인 사고가 나한테 올지 몰라서요.

혼자 있는 것이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 항상 이 모임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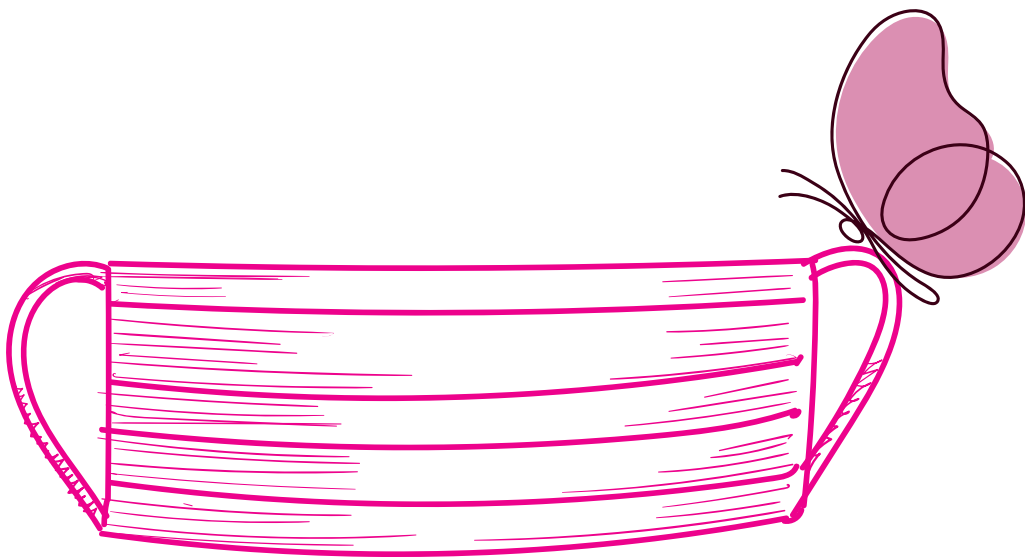
지금의(코로나19) 시간도 지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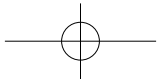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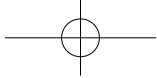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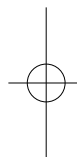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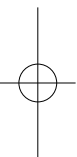
이제는 제가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잘 하는 것이 없는 것이 보이면 실망은 조금 하고,

그러니까 배우고 움직여서 실망할 틈을 안 주려고 이 모임에 안 빠지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어차피 바람처럼 지나갈 것이지만 이 모임은 없어질 때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양천구 마을공동체
코로나 극복 공동체 백신 나눔
수기공모 작품집

희망으로 가는 길목

발행일 2020년 9월
발행처 양천구 주민협치과, 양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전화 02-2643-1557
디자인 글자와기록사이
제작 제이케이프린팅

홈페이지
www.yangcheonmaeul.org